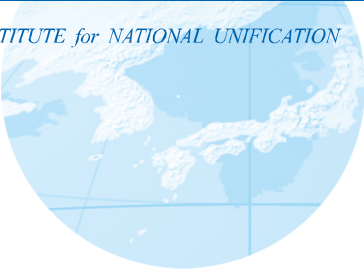




월간 북한동향

제6권 제6호 (2012년 11·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6권 제6호 (2012년 11·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11 November 2012

① 주차_11.01-11.04	1. 대내 동향 6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0
	3. 대남 동향 11
② 주차_11.05-11.11	1. 대내 동향 1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9
	3. 대남 동향 23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③ 주차_11.12-11.18	1. 대내 동향 2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34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④ 주차_11.19-11.25	1. 대내 동향 38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44
	3. 대남 동향 46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⑤ 주차_11.26-11.30	1. 대내 동향 50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54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58

인쇄: 2013년 1월 발행: 2013년 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윤훈희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12 December 2012

① 주차_12.01-12.02	1. 대내 동향 60 가. 정치 나. 군사	60
	2. 대외 관계 62	62
	3. 대남 동향 62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62
② 주차_12.03-12.09	1. 대내 동향 66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66
	2. 대외 관계 72	72
	3. 대남 동향 74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74
③ 주차_12.10-12.16	1. 대내 동향 78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78
	2. 대외 관계 85	85
	3. 대남 동향 88	88
④ 주차_12.17-12.23	1. 대내 동향 92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92
	2. 대외 관계 101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101
	3. 대남 동향 104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104
⑤ 주차_12.24-12.31	1. 대내 동향 108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108
	2. 대외 관계 115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115
	3. 대남 동향 120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120
■ 11월 일지 / 124		
■ 12월 일지 / 126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1.01-11.04

11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한광복 부총리, 당 부장에 임명(11/1, 노동신문)**
 - 북한의 한광복 내각 부총리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 신문은 이날 전국보건부문 일꾼회의가 전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으며 참석자 가운데 한광복을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소개했다고 전함.

- **김정은 “당과 수령에 충실치 못한 군인 필요없어”(11/2, 조선중앙TV)**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과 수령에 충실하지 못한 군인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 조선중앙TV가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열린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에서 한 연설에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군사가 다운 기질이 있고 작전전술에 능하다고 해도 우리에게겐 필요 없다”고 밝힘.
 - 조선중앙TV는 지난달 30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 성대히 기념’이라는 제목의 기록영화에서 김 제1위원장의 연설을 약 12분 분량으로 편집해 내보냄. 그는 연설에서 “역사적 경험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지 못한 군인은 혁명군대 군인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없으며 나중에는 혁명의 배신자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총 권 혁명가의 근본징표”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또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고사령관과 뜻과 정을 영원히 같이 하며 우리 당만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신념의 인간, 양심의 인간, 의리의 인간들로 준비시켜야 한다”며 “인민군 지휘성원들은 누구보다도 신념이 투철하고 양심이 순결해야 한다”고 지적함.

● **北김정은, 김정일보다 공개활동 활발(1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 횟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2일 보도함.
- 이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 전문사이트 NK뉴스의 루크 허먼 선임연구원은 이 사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9개월 반 동안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 횟수가 총 118회라고 밝혔는데, 이는 그가 지난해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을 참배했던 횟수까지 포함한 수치임.
- 반면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인 1994년 7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88회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北 내각 인사, 노동당 속속 진입(11/4, 연합뉴스)**

- 북한 내각에서 경제 분야를 담당했던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노동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고 4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매체는 지난 1일 전국보건부문 일꾼회의가 전날 개최된 소식을 전하며 참석자 가운데 한광복을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소개, 내각에서 금속·기계·정보기술(IT) 등을 다뤘던 한광복이 새로 당직을 맡았음을 확인함.
- 박봉주는 2007년 4월 총리직에서 해임된 뒤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됐다가 2010년 8월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전격 복권됐고 올해 4월 김경희 당비서의 바통을 이어받아 경공업 부장에 오름.
- 광범기 역시 1998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1년 넘게 부총리를 역임하다가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를 거쳐 올해 4월 당비서 겸 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위원장 자리에 오름.

■ **김정은동향**

- 11/1, 김정은 당 제1비서,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 · 교직원 · 학생들 · 총련 대표단 · 강습생들이 올린 편지에 대한 '친필' 전달(11.1,중통)
- 11/4, 김정은 당 제1비서, 새로 건설된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시찰 및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 전달(11.4,중통 · 중 · 평방)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 최태복 · 김양건(당 비서), 김병호 · 박춘홍(당 부부장) 등 동행 및 최창식(보건상) 등 현지 영접

- 11/4, 김정은 黨 제1비서, 준공을 앞둔 류경원·인민야외빙상장·롤라스케이트이장(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 전달) 시찰(11.4, 중통·중·평방)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김양건(黨 비서), 리영수(黨 부장), 김병호·량청송·박준홍(黨 부부장) 등 동행 및 리종무(체육상)·리주봉(체육성 黨책임비서) 등 현지 영접

■ 기타 (대내 정치)

-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11.4 평양에서 진행(11.4, 중통·중·평방)
- ‘국가체육지도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국 ‘결정서’ 채택 및 성원들 임명
- ‘국가체육지도위’는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사업, 체육과학기술의 세계적 수준으로의 발전과 선수 후비 양성사업, 선수들의 훈련과 국제경기를 위한 국가종합훈련 강화사업, 국내체육경기 활성화 사업 등 체육사업 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맡아하게 된다고 소개
- △장성택(위원장), △로두철·최부일·리영수(부위원장), △장선강(서기장),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조연준, 주규창, 김용진, 박봉주, 한광상, 리종무, 오금철, 전용남, 현상주, 리명길, 로성실, 김동일, 김영호, 김승두, 장 철, 최광진, 안정수, 조영철, 전길수, 리룡남, 리성호, 문응조, 김성의, 차희림(위원)

나. 사회·문화

● 평양공기 서울보다 나쁘다(11/1, 미국의소리(VOA))

- 유엔환경계획(UNEP)이 최근 보고서에서 평양 공기가 서울보다 나쁜 것으로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전함.
- UNEP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의 협조를 받아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조사를 벌여 완성한 ‘북한의 환경과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평양의 연평균 아황산가스 농도는 0.009ppm으로 같은 해 서울(0.006ppm)보다 높았음.
- 평양의 연간 먼지 발생량도 200g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0년대 초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광주광역시시의 먼지 발생량은 평양의 절반 수준인 120g이었음.

● 北 말라리아 감염자 지속 감소(11/3, 자유아시아방송(RFA))

- 현재 북한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1만3천520명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인용해 3일 전함.
- 국제구호단체인 ‘롤백말라리아(Roll Back Malaria)’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발표한 ‘2012 세계 말라리아 퇴치보고서’에서 이같이 밝

했으며 올해에는 북한의 말라리아 감염자 수가 보고되지 않아 이 숫자는 지난해 발표 때와 같은 수치라고 VOA는 전함.

● 北, 쌀·밀 등 곡물생산량 40년前 수준(11/4, 연합뉴스)

- 북한이 한 해 생산하는 각종 곡물생산량이 197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 한 명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곡물량은 40년 전보다 오히려 40%나 줄었다고 4일 연합뉴스가 전함.
- 4일 통계청이 최근 ‘북한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식량농업기구(FAO)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쌀·밀·보리·옥수수 등)은 2010년 452만t으로 1970년대 초반 생산량과 비슷함.
-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자료 집계가 시작된 1961년 358만t을 기록한 이후 300만~400만t 사이를 오르내렸고 1969년 437만t, 1970년 436만t, 1971년 449만t 등으로 1970년대 초 400만대를 기록함.

● 北김정은, 주민편의시설 시찰…‘민생행보’ 재개(11/4, 조선중앙통신)

- 지난달 29일 보름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일 만에 평양시내 의료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둘러보며 ‘민생행보’를 재개함.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김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시찰했다고 4일 밝힘.
-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김양건 당비서, 김병호·박춘홍 당 중앙위 부부장이 중앙연구소 시찰에 동행함.

● 北 국가체육지도위 발족…위원장에 장성택(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결정서는 ‘국가체육지도위’에 대해 “체육 대중화, 체육과학기술 발전, 체육인재 양성, 체육사업 지원 등 전반적인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도·시·군과 군경기관에 설치된다고 소개함.

- 첫 체육지도위원장에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에는 로두철 내각 부총리·최부일 부총참모장·리영수 당 근로단체 부장이 각각 임명됐고 김기남 당비서 등 32명이 체육지도위원에 이름을 올림.

2 대외 관계

- **北-UAE 항공협정 가서명·“비준 절차 남아”(11/2,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중동의 허브 아랍에미리트(UAE)와 항공협정에 가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현지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UAE 민간항공청(GCAA)과 북한 당국이 지난 달 15일 항공협정에 가서명했다”면서 “정식 체결을 위해 양국 정부의 비준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밝힘.
- **노르웨이, 北취약계층 위해 87만弗 추가지원(1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노르웨이 정부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을 위해 87만 달러를 추가지원키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이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노르웨이가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87만 2천600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최근 약속했고 기존 기부금을 포함하면 노르웨이의 전체 대북 지원금은 170만 달러 규모라고 밝힘.
 - WFP는 이 기부금으로 옥수수, 식용유를 구입한 뒤 WFP가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량가공공장에서 영양강화과자를 만들어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함.
- **작년 방북 중국인 19만명…2년새 2배로 증가(11/3,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의 수는 19만 명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계를 인용해 3일 전함.
 -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1년 여유업 통계공보’에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19만3천900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10년(13만1천100명)에 비해 47.9% 증가한 것이며 2009년(9만6천100명)의 2배를 넘는 규모임.

기타 (대외 일반)

- 美 국무성 부장관 ‘번즈’의 對北발언(핵야욕과 미사일계획이 동북아지역 안정과 평화에 위협 등) 관련 ‘우리(北)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대시정책 철회’ 주장(11.1.중통·노동신문·평방/호전세력의 황당무계한 위협타령)

3 대남 동향

● 北 “NLL서 한미훈련 강화는 위험한 흥계”(1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일 한미 양국이 제44차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한 것을 “위험천만한 흥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이것은 군사적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는 서해에서 북침도발의 도수를 더욱 높여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추악한 공모결탁”이라며 “북방한계선’은 미제침략군이 정전협정과 배치되게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힘.
- 또 ‘북방한계선’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남한 당국이 이미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남조선의 정계, 학계, 사회계도 ‘북방한계선’은 남북이 합의한 해상경계선이 아니고 정전협정에도 없는 비법선으로서 분쟁의 씨앗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침예한 군사적 긴장이 흐르는 서해 5개 섬과 주변수역에서 외세와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겠다는 노골적인 전쟁선포나 다름없다”며 “군사적 공모결탁이 초래할 엄청난 후과(결과)에 대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전함.

● 北 “南, 정상회담 내용 왜곡·날조”(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괴뢰보수패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제까지 왜곡·날조해 민심과 여론을 오도해보려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2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이전 정권에서 북과 NLL을 논의했다는 그 무슨 대화록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며 “이것은 곧 북남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그것을 뒤집어엮기 위한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비난함.
- 조평통 대변인은 또 “선거 때마다 ‘북풍’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괴뢰보수패당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2010년 6월 지방 선거 때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와 올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도 북남관계를 고의로 긴장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함.

● 北 “南, 정상회담 내용 왜곡·날조”(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괴뢰보수패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제까지 왜곡·날조해 민심과 여론을 오도해보려 하고 있다”고 2일 주장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이전 정권에서 북과 NLL을 논의했다는 그 무슨 대화록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며 “이것은 곧 북남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그것을 뒤집어엮기 위한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비난함.
- 조평통 대변인은 또 “선거 때마다 ‘북풍’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괴뢰보수패당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2010년 6월 지방 선거 때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와 올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도 북남관계를 고의로 긴장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함.

- 北조평통 “南 정권교체해야”...선거개입 시도(11/3,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3일 “남조선 각 계층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기도(시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대선을 계기로 정권교체를 기어이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남한의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은 민족의 재앙거리이고 온갖 불행의 화근”이라면서 “보수 골동품의 집합체인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남조선 사회와 북남관계는 이명박 정권 때와 똑같이 될 뿐 아니라 유신독재가 부활하며, 초래될 것은 파쇼적 탄압과 전쟁뿐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기타 (대남)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호국훈련’ 실시 관련 ‘韓美호전광들이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전쟁의 도화선에 끝끝내 불을 단다면 전면적인 보복대응과 무자비한 반공격으로 멸살되고야 말 것’이라고 지속 위협(11.1,중통/호국훈련의 침략적 정체는 가리울 수 없다)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 대답(11.2)】 보수패당의 北風조작책동(前 정권의 NLL관련 ‘대화록’을 거론하며 영토주권포기세력으로 선동)은 ‘부정부패사건에 쏠린 여론과 민주개혁세력 지지 민심을 차단해 불리한 大選정세를 역전시켜보려는 책동’이라고 비난(11.2,중통)
- 대통령의 對北발언(10.18, 연평도 순시) 및 ‘미사일정책선언’(10.7) 등을 지속 거론하며 “이○○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그들 자신의 중국적 파멸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비난(11.3,중통·노동신문·중방/대결전쟁책동은 파멸의 길이다)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1.05-11.11

11월

2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리설주, 사격·배구경기 관전(1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리설주 부부가 “4·25국방체육단의 사격경기, 번개팀과 평양팀 간의 여자배구경기를 봤다”며 “4·25국방체육단 야외사격장과 새로 꾸려진 체육관도 돌아봤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나라를 체육강국에 올려세우는 것은 국력을 강화하고 선군조선의 기상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는 중요한 사업”이고 “체육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승산 종목에 힘을 쏟으며 국내연맹전을 조직해 체육단 사이의 경쟁 열풍이 더 세차게 타 번지게 해야 한다”고 말함.

- **北,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 강화(11/9, 조선신보)**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9일 북한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이날 ‘사회주의 부귀영화: 우리식 경제부흥의 방도 5’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에서)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질서가 세워지고 적절한 방법들이 취해지고 있다”며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철저히 내각과 합의하여 풀어나가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북한 매체들이 경제단위를 시찰하는 최영림 내각총리의 행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각급 당 위원회에서는 내각과 각급 행정경제기관들이 경제사업의 담당자로서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내세워주고 떼밀어주고 있다”고 밝힘.

김정은동향

- 11/5, 김정은 黨 제1비서, 용성과 서포·역포지구 등 수도의 살림집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1.5,중방)
- 11/7,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에 ‘선물’ 전달모임, 11.6 최태복(黨 비서) 등 참가下 진행(11.7,중방)

- 11/8, 김정은 黨 제1비서, 11.7 창광·경상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왕밤’ 전달(11.8,중통)
- 김정은, 강계시 김일성 父子 동상 건설에 기여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11.8,평방)
- 11/8, 김정은 黨 제1비서, 임업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생일상 전달(11.8,평방)
- 11/9, 김정은 黨 제1비서, 라오스 주석 및 시리아 대통령 등의 ‘黨 창건’ 67돌 축하전문에 답전(11.9,중통)
- 11/10, 김정은 黨 제1비서,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육해운성 청진대 리사무소 일꾼” 등에게 ‘감사’ 전달(11.10,중방)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총리, 대동강자라공장 능력확장공사 현지 요해(11.6,중통·중방)
- 이에 앞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과일생산·보관·판매실태를 요해했으며, 평양 남새과학연구소 수경온실의 겨울철 생산 정상화 대책을 협의했음.
- 최영림 총리, 강원도 세포·평강·이천군의 대규모 축산기지 건축현장 점검(11.9,중통·중방)

나. 경제

● 북한에도 전자화폐 등장(11/6, 마이니치신문)

- 북한이 외화에 이어 북한 원화 전용의 전자화폐를 도입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6일 북중 무역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외화 전용 전자화폐는 이전부터 사용됐고, 10월에는 북한 원화 전용 전자화폐가 배포됐으며 북한 원화 전용 전자화폐는 이달 들어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전함.
- 북한 원화 전용 전자화폐는 급여와 연동될 뿐만 아니라 배급 관련 정보도 기록되는데 현금카드 형식인지, 신용카드 형식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전자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영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없으며, 사용 지역은 평양으로 한정됐다고 전함.

다. 사회·문화

● 北 상수관 작동 불가...주민들 펌프나 우물물 마셔(11/5, 연합뉴스)

- 북한은 시설 노후화와 연료 부족으로 상수관 시설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아 지방 주민들이 식수를 펌프 물이나 우물물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

- 났다고 연합뉴스가 유니세프 보고서를 인용해 5일 보도함.
-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평원군의 전체 가구 수는 모두 4만7천 가구였지만 상수원 시설 사용 가구는 8만9천792 가구로 거의 배에 달해 주민 대부분이 두 가지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北주민, 싼 음식으로 식량난 대처(1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 때문에 가격이 싼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세계식량계획(WFP)의 설문조사를 인용하여 8일 보도함.
- 방송은 세계식량계획(WFP)이 벌인 설문조사에서 ‘가격이 싼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꿔 식량난을 해결하고 있다’고 응답한 주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친구나 친지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고 ‘식사량을 줄였다, 끼니를 거른 적이 많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 **北, 내년 쌀·옥수수 440만t 확보 전망(11/9, 연합뉴스)**

- 북한이 내년에 440만t의 쌀과 옥수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180만t의 쌀을 생산하고 내년 추수 전까지 30만t의 쌀을 수입해 총 210만t의 쌀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10만t을 비축할 것으로 전망함.
- FAO는 또 내년 북한의 옥수수 확보량을 올해 생산분 210만t, 수입분 20만t 등 총 230만t 정도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 1명이 내년에 소비하는 쌀과 옥수수의 양은 각각 74.4kg, 80.3kg으로 올해(쌀 72.2kg, 옥수수 68.3kg)에 비해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北 류경원·인민야외빙상장·롤러스케이트장 준공(1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의 대동강 기슭에 주민편의시설인 류경원, 인민 야외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이 준공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류경원은 목욕, 이발, 미용, 안마, 치료 체육 등의 서비스를 하는 문화복지 시설로, 연건축면적이 1만8천379㎡이고 하루에 7천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통신은 설명함.

- 준공식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 김기남·최태복·문경덕 당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했고 최 총리는 준공사에서 “류경원과 인민 야외빙상장, 로라스케이트장(롤러스케이이트장)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함.

2 대외 관계

- **北-시리아 경제특구 ‘협조 양해문’(종합)(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시리아는 5일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밝힘.
 - 통신은 이날 양국의 정부 대표단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특수경제지대와 자유지대에서의 호상협조(상호협조)에 관한 양해문’에 조인했다고 보도했으며, ‘특수경제지대’는 나선과 황금평·위화도 등의 경제특구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과 시리아가 경제특구에 대한 시리아의 투자 문제를 협의했을 것으로 보임.
 - 북한과 시리아는 환경보호에 관한 협조 양해문을 체결했고 농업과학연구의 협조·교류 합의서, 2012~2015년 정보봉사(서비스) 집행계획서, 관광협조 이행을 위한 집행계획서 등에도 서명함.
- **北中, 평양에 종합 자동차 생산단지 조성(1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단둥(丹東)의 중조변경무역유한공사(중조변경무역)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고문에서 북한이 중국과 공동으로 총 36만㎡ 부지, 건축 면적 1만1천800㎡의 종합 자동차 조립 생산 단지를 평양에 조성중이라고 밝혔다고 6일 전함.
 - 중조변경무역은 2009년 9월 북한의 수도여객운수지도국과 평양에 평운중성합영회사 차조립 공장을 설립하고 지난해부터 ‘평양자동차’라는 등록상표를 이용해 버스와 화물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내년 3월18일 개장을 목표로 2천500㎡ 넓이의 매장에 대형 전시장을 갖춘 자동차 부품 도매상가도 만들고 있다고 밝힘.

● **獨단체, 北에 3년간 유기농법 전수(1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독일의 민간단체인 유기농연구소(FiBL)가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북한에 친환경 농법을 전수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연구소의 비아테 후버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이 지원한 50만 유로를 이용해 화학비료나 농약 대신 유기물을 이용하는 농업 방식을 북한에 전수하고 있다”며 “북한의 농업 지도자 약 20명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힘.
- 연구소는 북한의 농업연구소와 함께 약 30ha 규모의 농장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곡물을 재배하고 있고, 독일에서 파견한 연구원 5명이 북한 농업과학원 산하 유기조사연구원과 공동으로 북한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찾고 품종을 개량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후버 대변인은 “유기농법 전수와는 별개로 EU 원조협력청에 축산업 분야의 기술지원을 위한 대북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이 결정되면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임.

● **北노동당, 中당대회에 축전…“북중친선 강화”(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함.
-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7일 보낸 축전에서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해 귀 당의 전체 당원들과 중국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 동지들과 함께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 재부인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가 당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동하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적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대회가 원만한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고 강조함.

● **北日 회담 15~16일 몽골서 개최(종합)(11/9,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일본의 국장급 회담이 15~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통신은 9일 “2012년 8월 조일(북일) 사이의 외무성 과장급 접촉에 이어 쌍방 합의에 따라 11월15일과 16일 몽골 울란바타르(울란바토르)에서 정부 간 회담을 진행하게 된다”며 “회담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게 된다”고 밝힘.

● **北매체, 오바마 美대통령 재선 보도(11/10,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매체들은 10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논평 없이 보도함.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이날 “미국에서 6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결과 민주당 후보인 현 대통령 버락 후세인 오바마 공화당 후보인 밋 롬니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당선)됐다”고 전함.

● **오바마, 북미대화 역사 총괄해야(11/10,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오바마 대통령은 거시적 관점에서 조미(북미) 대화의 역사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이날 ‘재선된 오바마가 맞이할 결단의 국면’ 제목의 ‘시론’에서 “조선에서는 지난 20년간의 조미회담 역사에 대한 총화(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함.
- 또한, 지난 7월과 8월 북한이 각각 발표한 외무성 성명과 외무성 비망록을 거론하며 “클린턴 정권과 부시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오바마 정권이 조선과 어렵게 이루게 된 합의를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20년간에 걸친 조미 비핵화 대화는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은 20년 전에 채택된 조미공동성명(북미 공동 코뮌니케)에서 핵무기 불사용과 핵위협 포기,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조선의 평화통일 지지를 약속했었다”며 “조선이 이제껏 주장하는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함.

● **오라스콤, 北통신사업에 1억5천만달러 투자(11/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2008년 북한에 진출한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지금까지 총 1억5천만 달러를 북한에 투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전함.

- 방송은 중동의 한 경제전문 웹사이트를 인용해 “오라스콤이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총 1억5천300만 달러를 북한에 투자했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북한 내 통신망 구축 사업에 자금의 대부분이 쓰였다”고 설명함.

■ 기타 (대외 일반)

- ‘인민군열사묘’(北 인민군 遺骸 안치, 중국 길림성 공주령시 소재) 개건 준공식, 11.5 北 인민군열사묘 준공식참가 대표단(단장 : 허상옥) 및 중국 인민해방군 심양군구 공군 부사령원 등 참가下 진행(11.6.중통·중방)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조평통, 박근혜 후보 대북정책 공약 비난(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최근 발표한 대북정책 공약을 ‘전면대결공약’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밝힘.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과 문답에서 박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에 대해 “이명박 역도의 대결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이명박 역도의 대북정책보다 더 위험천만한 불씨를 배태하고 있는 전면대결공약, 전쟁공약”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그(박근혜)는 이전 독재자들이 들고나왔다가 되서리를 맞은 ‘자유민주주의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체제대결기도와 흡수통일 망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명박 역도도 처음에는 감히 입 밖에 내기를 꺼리던 ‘북인권법’이니, ‘탈북자’니 뭐니 하는 망발도 공공연히 했다”고 강조함.

나. 경제·사회·문화

● ‘개성공단 北일방과세’, 납부기업 2곳으로 늘어(11/7, 연합뉴스)

- 북한이 일방 부과한대로 세금을 납부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2개사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입주기업이 기존 8개사에서 9개사로 늘어났다”고 밝힘.
- 9개사에 부과한 세금 총액은 16만달러이며, 9개사 가운데 1개사가 최근 400달러의 세금을 내 북측의 요구대로 세금을 납부한 입주기업은 2개사(1만7천400달러)로 늘어났다고 전함.

● **北서 회견한 김광혁 가족, 탈북자로 확인(종합)(11/9, 연합뉴스)**

- 남한에서 거주하다가 재입북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김광혁-고정남 부부가 탈북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정부 당국자는 9일 “전날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광혁 가족은 회견 영상과 여러 정황 등으로 볼 때 국내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김광혁은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부인 고정남과 남한에서 태어난 두 살짜리 아들을 대동한 채 중국 선양을 통해 9월12일 재입북했다고 전날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장함.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광혁-고정남 부부와 아들 김세한 등 세 사람이 지난 9월 초 중국으로 출국해서 북한으로 재입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조평통] 대변인 중동기자 질의 대답(11.8)]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공약(교류협력사무소 설치, 국가안보실 신설, 북인권법 제정 등) 관련 “이○○역도의 대북정책보다 더 위험천만한 불씨를 배태하고 있는 전면대결·전쟁공약”이라 비난(11.8,중통·중방·평방)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美 국방장관의 韓美 미사일방위체계구축문제 토의 발언 등 관련 ‘이○○ 정권 임기내 미사일방위체계에 얽어매 놓으려는 미국의 패권주의 산물로 공화국과 주변나라에 대한 선제공격능력 확보를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11.8,중통)
- 韓美 연합사 설립(1978.11.7) 34주년 관련 ‘韓美당국이 ‘전자권’ 전환의 간판 밑에 새로운 북침합동작전기구를 만들려는 것은 新북침전쟁기구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비난하며 ‘지체없는 해체’ 주장(11.8,중방·노동신문/새로운 북침전쟁기구 조작용 노리고)

11.12-11.18

11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체육지도위원장’ 장성택, 日체대 대표단 만나(11/14, 조선중앙TV)**
 - 북한의 최고 실세로 통하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자격으로 최근 방북한 일본체육대학 대표단을 만났다고 조선중앙TV이 14일 전함.
 - 이 방송은 장 부위원장이 14일 마쓰나미 겐시로(松浪健四郎,66) 대학 이사장 등 일본 체대 대표단의 주요 인물들과 일본의 전 프로레슬러 출신 이노키 간지 이노키게놈연합주식회사 회장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보도함.
- **北김정은, 시진핑 신임 中공산당 총서기에 축전(11/1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5일 중국의 새 지도자로 부상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당신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거(선출)된 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라며 “중국인민의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위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시기에 당신이 중국공산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중책을 지니게 된 것은 당신에 대한 귀 당의 전체 당원과 군대와 인민의 두터운 신뢰와 기대의 표시로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조(북)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인방(이웃나라)이며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조중친선은 두 당,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의 심혈과 노고가 깃들어 있는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며 “나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계속 강화발전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함.

■ **김정은동향**

- 11/13,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 지원'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1.13,중방)
- 11/14, 김정은 黨 제1비서, 11.13 평양 금성학원 학생들에게 '밤' 전달(11.14,중통)
- 11/16, 김정은 黨 제1비서, 11.16 시리아 대통령에게 '시정운동' 42돌 즈음 축전(11.16,중통·중방)
- 11/17,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 內 공원꾸리기와 호완정리공사에 참가한 군부대들에 감사전달(11.17,중방)
- 11/17,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보내준 체육기재 전달모임, 11.17 리영수(黨 부장)·리종무(체육상) 등 참가하 청춘거리 경경기관에서 진행(11.17,중통)
- 11/17,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 공원꾸리기와 호안정리공사(합장강·보통강)에 참가한 부대 군인들에게 '감사' 전달(11.17,중방)
- 11/18, 김정은 黨 제1비서,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11.18,중통·중방·평방)
· 김경희, 장성택, 김기남, 박도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광범기, 문경덕, 로두철, 조연준, 리영수, 로성실 등 참가
- 11/18,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 대표들에게 보낸 '선물' 전달 모임, 11.18 리영수(黨 부장) 등 참가하 진행(11.18,중통·중방)
·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 대표들, 당창건기념탑 및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참관(11.18,중통)

나. 경제

● **'고공행진' 北쌀값, 상승세 주춤(11/16, 데일리NK)**

- 반년 넘게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지난 9월 최고치를 기록했던 북한의 쌀값이 지난달에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대북매체 데일리NK가 보도함.
- 신문이 주기적으로 집계해 공개하는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22~29일 평양, 신의주, 혜산 등 북한 3개 주요도시 쌀값은 전달 대비 kg당 100~800원(북한원화) 떨어진 6천원, 6천100원, 6천200원이었으며, 특히 평양지역 쌀값은 전달 대비 800원이나 떨어져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다. 사회문화

● **北 주작물 생산 2년연속 증가...식량부족 여전(11/12, 연합뉴스)**

- 북한 농가의 주작물 생산이 2년째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서 12일 전함.

- 유엔 조사팀이 지난 9~10월 수확기에 북한 9개 농업지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작물 생산은 증가했지만 주민들의 필수 단백질과 지방 섭취 부족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북한의 대두 생산이 30%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채소류도 적어 기본적인 식량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50만7천t의 곡물을 수입해야 한다고 밝힘.

● 北잡지, 금강산서 발굴 금동아미타여래삼존불 소개(11/13, 조선)

- 고려 말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아미타여래삼존불상이 금강산에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북한의 선전용 화보잡지 '조선'이 13일 보도함.
- '조선' 11월호에 따르면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최근 금동아미타여래삼존불상을 전시해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 불상들은 2009년 10월 금강산 주봉인 비로봉에서 발견됐으며 14세기 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 이 불상들은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이 연꽃받침대 위에 걸가부좌 한 모습이며, 아미타여래좌상(15.2cm)의 경우 여래 징표인 고수머리에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로 두 손에 보주를 잡고 있음.

● 北서 식품공장 14개 운영중(11/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서 총 14개의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함.
- 나나 스카우 WFP 북한 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에 “지난 9월 평양에서 옥수수과 밀가루를 이용해 영양강화 비스킷을 만드는 식품가공공장이 새로 문을 열었다”며 “북한에 있는 14개 공장에서 올해 3분기 생산한 식품의 양은 1만200t으로 이전보다 10% 늘었다”고 밝힘.
- 영양강화 비스킷은 옥수수와 밀가루를 주재료로 가로, 세로 5cm의 정사각형 모양의 과자로 'WFP'라는 글자가 새겨져 학교와 탁아소 등 아동시설에 공급되며 어린이 1명당 하루 2개씩을 지원함.

● 北, 문화유산보호법 제정...무형문화도 보호대상(11/15, 민주조선)

- 북한이 구전문화를 비롯한 무형의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고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밝힘.

- 신문은 ‘문화유산보호법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해 종전에 채택됐던 문화유물보호법의 효력을 없애고 문화유산보호법을 채택했다”고 밝힘.
 - 신문에 따르면 문화유산보호법은 성, 건물, 탑, 비석 등 물질적 문화유산 뿐만아니라 언어, 구전문학, 무대예술, 사회적 전통 및 관습, 명절, 전통 수공예술, 민속놀이 등 비물질적 유산의 발굴·수집·관리·복원을 다루고 있음.
- **北, 4차 어머니대회 개막...“아들딸 많이 낳아야”(11/15, 조선중앙방송 등)**
- 북한이 제정한 첫 ‘어머니날(11월16일)’ 하루 전인 15일 제4차 어머니대회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은 “제4차 전국 어머니대회는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존경과 축하의 대회이며 당과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조선 여성들의 혁명적 풍모를 힘있게 과시하는 충정과 맹세의 대회”라며 “대회에는 자식을 많이 낳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맡아 훌륭히 키우는 어머니들, 군인가족들, 노력혁신자들, 일꾼들을 비롯한 모범적인 여성들과 해외동포 여성들이 참가했다”고 소개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내년 식량 21만t 외부지원 필요(11/13,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 2014년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21만t 정도의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함.
 -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12일 발표한 '2012 북한 작황보고서'에서 내년에 북한이 492만t의 식량을 생산하고 30만t을 수입해 필요한 식량 543만t 가운데 522만t만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FAO에서 북한 농업을 담당하며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키산 군잘 박사는 1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지난 20년간 계속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황이 내년에도 여전할 것”이라며 “부족분(21만t)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北,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해 규제 완화(11/14, 자유아시아방송(RFA); 아주시보(亞洲時報))**
 -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적용하던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홍콩 아주시보(亞洲時報)를 인용해 14일 전함.
 - 아주시보는 지난 8일 보도한 중국인 북한 관광 동행기사에서 과거 몇 주씩 걸렸던 북한 비자 발급이 하루 만에 이뤄졌으며 북중 국경에서 북한 측 출입국 심사원은 중국 관광객의 여권을 꼼꼼히 검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힘.
 - 또 북한은 관광객들이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차량 맨 뒷좌석에 앉아있곤 했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도 사라졌다고 전함.

● 北-中 ‘2013년 체육교류의정서’ 체결(11/15,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 중국이 14일 평양에서 ‘2013년 체육교류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밝힘.
- 방송은 “북한 내각 체육성과 중국 국가체육총국 사이에 2013년 체육교류의정서가 14일 평양에서 조인됐다”며 “손광호 체육성 부상과 오제 중국 국가체육총국 부총국장, 오세광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문화참사가 조인식에 참석했다”고 전함.

● 北, 박사급 IT인력 5명 中파견 추진(11/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산하기관이 지난 9일 낸 ‘북한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교류·협작’ 공고문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 인력의 중국 파견이 추진 중”이라며 “북한의 전문 IT 인력 대다수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북한이 박사급 정보통신(IT) 인력 5명을 중국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방송은 북한이 이번에 중국에 파견하는 박사급 IT 인력을 5명으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중국 측 수요에 따라 파견 인원을 늘리길 원하는 것을 밝혔다고 덧붙임.

● 北日 회담 북대표 “日과 심도있는 논의 진행”(11/16, 조선신보)

- 북한 외무성의 송일호 북일교섭 담당 대사가 몽골에서 15일 열린 일본과의 첫날 국장급 회의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보도함.
- 신문은 이날 “첫날 회담에서 조(북)·일 쌍방은 ‘각기 관심사항들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히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송일호 대사는 이번 회담이 오랜 중단기간을 거쳐 실현된 정부 간 회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대표들이 정식으로 마주앉게 되는 만큼 쌍방에 관계개선의 의향이 있다면 서로 관심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협상의 궤도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신문은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은 ‘모처럼 마련된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현안을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특정한 의제만을 다루는 회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함.

● 北일간 후속회담 조기개최 합의(11/17, 조선신보)

- 북한과 일본이 4년 만에 열린 회담에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후속회담을 조기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7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송일호 북일교섭 담당대사는 지난 15~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북일 간 국장급 회담이 끝난 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밝혔고 "회담에서는 조일(북일)평양선언이 두 나라 관계개선의 이정표로 된다는 데 대해 쌍방이 견해를 같이했다"며 "(후속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北 송일호 "북일 회담 진전 있었다"(11/18, 교도통신)

- 몽골에서 열린 북한과 일본의 국장급 회담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송일호 북일 교섭 담당대사가 회담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송 대사가 이날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경유지인 베이징으로 떠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나는 (북일 회담이)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 간에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많다. 1, 2회의 협의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으나, 송 대사는 그러나 '진전'이 있었다는 부분이 어떤 의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유엔에서의 '北 인권문제' 거론 관련 '동족을 걸고들며 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속심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南과 국제사회의 규탄요구를 녹차하고 여론 이목을 딛 대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왜곡 주장(11.13.노동신문 · 중방/파멸을 재촉하는 인권모략소동)
- 中國국가체육총국대표단, 만경대 · 주체사상탑 · 개선문 · 국가선물관 · 인민야외빙상장 · 하나음악정보센터 · 우의탑 등 참관(11.16.중통 · 평방)
- 일제의 '을사늑약' 날조(1905.11.17) 107돌 즈음 '국제법상 요구와 원칙을 유린한 허위문서'라고 비난하며 '과거청산' 촉구(11.17.중통 · 노동신문/일본은 죄많은 과거를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

나. 6자회담(북핵)

● 北 “美, 조선 적대 정책 포기해야 핵문제 해결”(11/12,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조선반도 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조미(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면 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날 ‘모든 것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철회에 달려있다’란 개인 필명의 논설에서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한사코 회피하고 교전상태를 지속시키는 것 자체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며 “미국은 정전협정의 주요 조항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증대시켜 끝내는 우리를 핵보유로 떠밀었다”고 비난함.
-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쌍방은 서로 상대 측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 교전관계가 완화 해소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반도 핵 문제도 풀릴 것”이라며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서 화해세력 집권시 협력·교류 활성화”(11/15, 노동신문)

- 북한은 15일 남한의 차기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그동안 중단된 남북간 협력사업이 전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노동신문을 통해 밝힘.
- 신문은 이날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에서 화해지향적인 세력이 집권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중단된 협력과 교류사업들이 각 방면에 걸쳐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또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악화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강렬한 지향이며 현실의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함.

● 北, 대선개입 비난에 “응당한 단죄” 주장(11/1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북한은 16일 남한의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비난에 대해 남측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한 점 등을 거론하며 “죄행에 대한 우리의 응당한 단죄”라고 주장했다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날 밝힘.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보도에서 “허위날조와 모략으로 우리 존엄과 체제를 시비하는 괴뢰보수패당이 ‘북의 대선개입’을 입에 올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도적이 도리어 매를 두는 추태”라고 공격하며, 정부나 여당인사들이 대선국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북한인권문제 등을 거론한 것을 문제삼아 남측이 먼저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비난하고 도발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함.
- 조평통은 또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지난달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했던 점도 거론하며 “(남한정부가) 그 누구의 ‘군사도발’을 운운하면서 외세와 결탁해 북침전쟁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함.

나. 경제·사회·문화

● 남북불교도, 개성서 합동법회 봉행(11/16, 평양방송)

- 남북한 불교도가 15일 개성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911주기 다례제 및 영통사 낙성 7주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고 평양방송이 16일 전함.
- 남북 불교도는 법회에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존중하고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발언문을 채택했고, 이번 합동법회에는 법회 당일 방북한 김용태 사무국장 등 천태종 관계자 20명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중앙위원회 교직자, 영통사 승려·신도가 참석했다고 보도함.

■ 기타 (대남)

- 박근혜 大選후보의 '외교안보통일정책공약(11.5)'은 "이○○의 對北정책보다 위험천만한 불씨를 배태하고 있는 전면대결공약, 전쟁공약"이라고 지속 집중 비난(11.12,중통 논평/역사의 오물통에서 두저낸 대결공약, 평방/논평, 흡수통일 야망이 비긴 대결공약)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통일부, 정대협 벌금납부 조건부 유예결정' 관련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배상과 재침책동을 배격하는 전민족적 애국투쟁을 막아보려는 용납 못할 친일매국 망동'이라고 왜곡 비난(11.13,중통/용납 못할 친일매국망동)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 대답(11.17) 우리정부의 '연평도 포격전(11.23) 2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연평도에서 당한 참패 만회, 대결의식을 고취해 보수정권을 연장해 보려는 발악에 불과하다'고 비난(11.17,중통 · 평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1.19-11.25

11월

4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軍부대 찾은 김정은 “군시설, 승마장으로 바꾸라”(종합2보)(11/1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직속 기마중대 훈련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9일 보도함.
 - 이날 시찰에는 최룡해 군총정치국장, 김경희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영철 군총참모장, 김기남 당비서, 김격식(상장), 김양진·김평해·문경덕 비서, 박봉주 당경공업부장, 한광상 당재정경리부 제1부부장, 김경옥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룡하 당부부장, 황병서 당조직지도부 부부장, 김병호 당부부장, 최부일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손철주(상장), 박재경 총정치국 선전선동담당 부국장, 박정천(중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전창복(상장) 등이 동행했다고 전함.
 -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기마중대 훈련장을 찾아 여러 훈련시설과 군인들의 기마훈련을 지켜봤으며 이번 군부대 시찰 배경에 대해 그는 기마훈련장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만들 것을 구상하고 해당부문에 과업을 줬다며 실태 파악을 하려고 나왔다고 말함.
- **北 김정은 여동생 공개활동 주목…군부대 오빠 동행(11/19,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공개 활동에 나섰다 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함.
 - 김여정의 모습은 조선중앙TV가 19일 김 제1위원장의 제534군부대 직속 기마중대 훈련장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방영한 관련 사진에서 확인됨.
- **北 전방위 충성도 검증..최부일도 강등(종합)(11/20, 연합뉴스)**
 -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당·정·군 전방위에 걸쳐서 충성도 등에 대한 인물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지난 4월 후계를 공식 승계한 이후 ‘당→정→군’ 순으로 주요 인물들에 대해 충성도와 비리 등에 대한 검증(검열) 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밝힘.
- 당국자는 “검증 작업은 평양에서부터 시작해 현재 지방단위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 결과에 따라 일부 문제가 보이는 사람들은 직위는 그대로 두고 계급을 내린다든가 인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함.

● 北김정은 “불순 적대분자 색출해 짓밟개버려야”(1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전국 분주소장 회의가 23일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낸 축하문이 회의에 전달됐다고 24일 보도함.
- 북한이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 1999년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며, 이번 회의에는 김기남 당비서,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문경덕 당비서,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태종수 함경남도 당책임비서를 비롯한 각 도 당책임비서, 인민보안기관 일꾼 등이 참석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축하문에서 “인민내무군 안에 최고사령관의 유일한 영군체제와 혁명적 군풍을 확고히 세우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지시를 즉시 접수, 즉시 대책, 즉시 집행, 즉시 보고하는 강철같은 규율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또 “소요·동란을 일으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는 불순 적대분자, 속에 칼을 품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모조리 색출해 가차없이 짓밟개 버려야 한다”며 “(분주소장들은) 관내 군수공장을 비롯한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 인민봉사 부문과 중요대상 건설에 대한 보안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김 제1위원장은 “인민보안원은 법을 악용해 인권을 유린하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며 제 살 궁리만 하면서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분주소장과 인민보안원은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함으로써 참된 인민의 보안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리영호 前총참모장 ‘반당·반혁명분자’ 규정(11/25, 마이니치신문)**
 - 북한 노동당이 지난 7월 군 총참모장에서 해임된 리영호를 ‘반당(反黨)·반혁명분자’로 규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함.
 -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北中 무역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 노동당이 군 총참모장에서 해임된 리영호를 지난 10월 중순 ‘반당·반혁명분자’로 결정한 사실을 증견 간부들에게 알렸다고 전함.
 - 신문은 또 노동당이 지난 10월부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리영호가 군 내에서 파벌을 만드는 ‘군별주의’에 빠졌고, 부인이 마약 거래에 관여했다 등으로 해임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함.

- **北, 전국 규모 사법검찰 간부회의 소집(1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전국 규모의 사법검찰기관 간부회의를 평양에서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함.
 - 통신은 이날 “만수대언덕에 모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전국 사법검찰일꾼 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이 25일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고 보도함.

■ 김정은동향

- 11/19, 김정은 黨 제1비서, 제534군부대 직속 기마중대 훈련장 시찰(11.19,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김경희, 장성택, 현영철, 김기남, 김격식,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박봉주, 한광상, 김경옥, 리용하, 황병서, 김병호, 최부일, 손철주, 박재경, 박정천, 김영철, 전창복 등 동행
- 11/19, 김정은 黨 제1비서, 보위기관 창립절을 맞으며 ‘국가안전보위부’ 방문(11.19,중방)
 - 최룡해(黨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동행 및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대장), 김창섭(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상장) 등 지휘성원들이 맞이했음.
- 11/19, 김정은 黨 제1비서, 11.18 혁명학원들과 평양시내 유치원·탁아소들에 물고기 전달(11.19,중통)
- 11/24, 김정은 黨 제1비서, 11.23 전국분주소장회의 참가자들과 전체 인민보안원들에게 ‘축하문’ 전달(11.24,중통·중방)
 - △혁명의 수뇌부 사수, △김일성·김정일·김정숙 동상과 혁명전적지 등 보호, △소요, 동란을 일으키려는 불순적대분자색출·처단, △중요대상건설에 대한 보안 강화, △준법교양과 반범죄 투쟁 등 강조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총리, 평안남도 대안중기계 순천화학연합기업소 현지 요해(11.19,중통·중방)
- 최영림 총리,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와 413연구소 현지요해(11.20,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1.20 3중 3대혁명붉은기(무역집배 유정1호), 2중 3대혁명붉은기(해운탄광 등 11개 단위) 등 수여 '정령' 제2810호 발표(11.23,중방)
- 상임위, 11.20 모범적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 수여 '정령' 제2811호도 발표(11.23,중방)

나. 군사

● 美, 北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 포착(11/23, 아사히신문)

-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을 포착해 한국과 일본에 통보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함.
- 신문은 기술적으로 북한은 이달 말이라도 미사일 발사가 가능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신문에 의하면 미국은 이달 초 북한의 평양시 산음동에 있는 무기공장에서 미사일 부품으로 보이는 화물이 평안북도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기지 조립동으로 운반된 것을 위성 사진으로 포착함.
- 위성에 포착된 화물의 모습은 지난 4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짐.
- ※ 지난 4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KN-08

● 北도 연평도 인근서 포격 2주년 행사...‘승리’ 주장(11/24,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연평도 포격 2주년을 맞아 23일 연평도 인근인 황해남도에서 군·민 연합모임을 열고 승리를 자축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4일 전함.
- 황해남도 평화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 열린 모임에서 안지용 소장(우리의 준장)은 “연평도 포사격 전투는 우리 군대의 자랑찬 승리로 결속된 정의의 격전이였다”며 “군단 안의 장병은 기회가 또다시 온다면 조국통일 대전의 승리를 이룩할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 있다”고 주장함.
- 최정룡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만일 도발자가 이 땅에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2년 전 그날처럼 군인들과 생사를 같이하며 원수들을 모조리 격멸 소탕할 것”이라며 “도안의 일꾼과 근로자들은 군인들과 조국의 강성번영과 통일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함.

- 토론자로 나선 군인들도 “생사를 판가름하는 전투마당에 서슴없이 달려와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던 고마운 인민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원민(주민을 도와주는) 기풍을 더 높이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다. 사회문화

● 北 휴대전화 가입자 150만명 돌파(11/20, 연합뉴스)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섰고 북한 내 이동통신 사업자인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오는 2015년까지 독점사업권을 3년간 연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테크놀러지(OTMT)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은 20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오라스콤의 북한 내 금융 자회사인 오라뱅크가 이동통신 관련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사위리스 회장은 고려링크의 가입자 수가 현재 150만명 이상이라면서 평양과 15개 주요도시, 100개 중소도시 등이 통화권이라고 설명함.

● 北, 평양시 하천정비·공원 리모델링 완료(11/20,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북한당국이 지난달 초부터 추진해온 평양시내 하천정비 사업과 공원리모델링 사업이 대부분 완료됐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평양시내 합장강·보통강 정리사업, 공원리모델링 사업이 40여 일 만에 모두 마무리됨. 합장강 정리사업에서는 28만㎡의 진흙을 파내고 1만8천㎡의 옹벽을 보수했고, 보통강 정리사업에서는 80만㎡의 진흙을 파내고 3만2천㎡의 옹벽을 조성하는 한편 부지 9만㎡에 대한 정리·녹화사업도 진행함.

● 북한 전역서 체육환경 개선 사업 활발(1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전역에서 체육시설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함.

- 통신은 이날 “체육강국 건설을 위한 열풍 속에 각지에서 체육시설이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 확장되고 있다”며 평양과 각 지방의 성과를 소개하며 “평양에 인민야외빙상장과 통일거리운동센터, 양각도체육촌이 운영되고 월미도체육단에는 인조잔디를 깔 축구경기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전함.

● **北 적십자대회 개최…향후 4년간 발전전략 설정(1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적십자회가 2016년까지 달성할 전략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함.
- 북한 적십자회는 21일부터 이틀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적십자대회를 열고 2016년까지 조직 능력을 강화해 봉사의 질과 양을 개선·확대하고, 안전하고 활력있는 지역건설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 활동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힘.
- 적십자회는 이어 ▲재난 대비 사전준비 및 긴급 대응능력 향상 ▲질병 예방, 구급처치 기술 보급 및 보건 선전·교육 강화 ▲적십자 운동의 근본 원칙과 인도주의 정신 확산 ▲이산가족의 고통 경감 및 해외동포의 인권과 존엄, 권리 옹호 등을 ‘전략적 목표’로 제시함.

● **EU “北 올해 식량 사정 작년보다 좋아져”(11/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유럽연합(EU)의 식량조사단은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작년보다 나아진 것으로 평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EU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의 데이비드 샤록 대변인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의 작황이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 당국의 식량배급량도 작년보다 늘었다”고 말하며, “북한의 식량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추가로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북한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임.

2 대외 관계

- **중기업, 北나선특구 투자 가속화(11/20, 신정보(新京報))**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나선 특구에 중국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중국 신정보(新京報)가 20일 밝힘.
 - 신문은 지린(吉林)성 경제합작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나선 특구에 투자를 결정한 중국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이 8~10개사에 이른다고 전함.
 - 또한, 지난 8월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기간에 북·중이 6개 기업의 투자사업과 4개 정부합작사업에 정식 합의했으며 중국교통그룹, 중국철로건설그룹, 자오상(招商)그룹, 야타이(亞泰)그룹 등 대형 기업들이 곧 나선 특구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EU, 1년반새 北에 1천만유로 지원(11/2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연합(EU)이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1천만 유로(약 138억원)에 달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함.
 - 데이비드 샤록 EU 인도지원사무국(ECHO) 대변인은 작년 7월부터 지난 달까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850만 유로, 영국의 민간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150만 유로를 각각 북한에 지원했다고 설명함.
 - 또한, 샤록 대변인은 지난 2010년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 20만 유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30여 개의 대북지원 사업에 총 1억2천440만 유로를 지원했다고 덧붙임.

- **北,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전향적 자세(11/22, 교도통신)**
 -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함.
 - 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일본 측이 제기한 납북 피해자 합동 조사위원회의 설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국장급 회담을 이달 내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10월 하순부터 이달에 걸쳐 일본 정부의 핵심부와 가까운 관계자가 외국에서 북한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총리 관저의 의향'으로 남북 피해자의 안부에 관한 합동조사위원회의 조기 설치를 제안했음. 북한 측은 이에 대해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생각을 수용해 남북자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든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회답했다고 전함.

● **北 대표, 유엔서 "실용 위성 계속 쏘겠다"(11/22, 노동신문)**

-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앞으로 실용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는 입장을 또다시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지난 15일 유엔총회 제67차 전체회의 때 열린 안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 등과 관련한 토의 연설에서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 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해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것"이라고 말함.
- 대표는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따라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으며, 4월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위성(장거리로켓)' 발사를 문제 삼아 의장성명 발표를 강요했다고 비난함.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日, 北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처한 무인기 개발계획' 발표 관련 '패망 후 수십 년간 재침의 제도적·법률적·물적완비 등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해온 일본이 군사작전적 실행단계로 이행하려 한다'고 비난(11.19.중통/재침의 날개를 퍼려는 군국주의 일본)
- 北 대표, 11.15 유엔 총회 제67차회의 전원회의 연설에서 '北 우주개발기관 확대 강화·실용위성들 계속발사'를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의 공정성과 비선택성 보장,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不許' 등 주장(11.22.중통)
-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11.23),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비난하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건을 위한 권리 보장할 것' 강조(11.23.중통)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승전행사, 제2의 연평도 불바다로 이어질 것”(1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1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2주기를 맞아 각종 추모행사를 벌일 계획에 대해 ‘제2의 연평도 불바다’를 거론하며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함.
 -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군대가 있는 한 괴뢰들의 거짓으로 포장된 ‘연평도 승전’ 기념식 추태는 제2의 연평도 불바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괴뢰들이 다시 도발을 걸어온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서남전선군 장병의 드팀 없는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함.
 - 또한 대변인은 “승전 나발을 불어대며 그 무슨 기념식 따위 놀음을 벌여 놓을수록 그것은 우리 서남전선군 장병의 보복의지만을 백배해줄 뿐”이라고 강조함.

- 北 “연평도 포격은 자랑스러운 승전” 주장(11/23, 노동신문)
 - 북한은 23일 2주기를 맞은 연평도 포격 사건을 ‘승전’, ‘정의의 승리’이며 도발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함.
 - 북한의 ‘군사논평원’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해괴한 광대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연평도 포격전은 신성한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부정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라며 “그것은 또한 분별을 모르는 괴뢰군부 호전광들에게 패전의 쓴맛을 안겨주고 용감무쌍한 백두산 혁명장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시위한 자랑스런 승전”이라고 주장함.
 - 논평원은 우리 군 당국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를 본거지로 북한을 위협하는 포사격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도발광기에 들뜬 괴뢰들은 우리의 거둬되는 사전통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신성한 우리 영해에 함부로 불질을 해대기 시작했다”고 남측을 비난했으며, “현실적으로 연평도

불바다를 펼친 우리 서남전선 장병들 속에서는 단 한명의 희생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다”며 “있었다면 들판에 매놓은 한마리 황소의 뒷다리에 눈먼 포탄 한개가 박혔을 뿐”이라고 우리 군(軍)의 대응 포격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함.

- 논평원은 이어 “괴뢰들이 또다시 도발을 걸어온다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서남전선군 장병들을 포함한 우리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의지”라며 “괴뢰들의 도발책동이 우심해질수록(더욱 심해질수록) 두해 전의 연평도 불바다가 제2의 연평도 불바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南외국인 금강산관광 중단 요구는 주권침해”(1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2일 우리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관광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금강산 국제관광에 대해 삿대질하는 것은 금강산이 누구의 땅인지도 모르고 풍수 없이 놀아대는 가소롭기 짝이 없는 짓”이라며 이같이 밝힘.

기타 (대남)

- 대통령 해외순방시 對北발언(北인권상황 등) 관련 ‘민심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자의 역겨운 추태’라고 비난(11.19,중통·노동신문·평방/대결광신자의 공색한 인권타령)
- 통일부의 ‘민간통일운동단체에 정치활동 자제 공문’(11.7) 발송 관련 ‘반역정권 심판을 위한 활동에 제동을 걸어 보수세력 재집권을 실현해 보려는 술책’이라고 비난(11.20,중통·노동신문/정치활동 자제는 누가 해야 하는가)
- 「北 서남전선 사령부」 대변인, 11.21 ‘조선인민군신문사’ 대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北 연평도 포격 도발(11.23) 2주기 기념행사’ 계획에 대해 “제2의 연평도 불바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11.22,중통·중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1.26-11.30

11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김정은 “비사회주의적 행위, 엄격히 다스려야”(1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30년 만에 전국 규모의 사법검찰기관 간부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함.
 - 통신은 “전국 사법검찰일꾼 열성자대회가 26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대회에서는 검찰부문 회의와 재판부문 회의가 각각 진행됐다”고 밝힘.
 - 이날 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법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란 제목의 서한을 최태복 노동당 비서가 전달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서한에서 “사법검찰기관은 수령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중요한 사명을 지닌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 보위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위력한 무기”이며 “사법검찰일꾼들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려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차 넘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힘.
- **北당국, 리영호 찍힌 ‘1호 사진’ 회수(11/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 7월 해임된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찍힌 ‘1호 사진’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전함.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한 북한주민은 “중앙에서 그를 반당·반혁명분자로 낙인찍었다는 소문이 지난 8월부터 돌기 시작했다”며 “인민군대 산하 당 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리영호 사진을 거둬가기 시작했다”고 밝힘.
- **北 허종 쿠웨이트 대사 교체(11/27, 연합뉴스)**
 - 허종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가 8년여 부임기간을 마치고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27일 쿠웨이트 왕실 사이트에 따르면 허 대사는 이달 25일 작별 인사차 셰이크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 국왕과 셰이크 자베르 무바라크 알 사바 총리를 예방함.

● 北 리영호 숙청 증거 찾을 수 없어(11/27, CCTV)

- 중국 국영 CCTV는 27일 “현재로선 리영호 전(前) 북한 총참모장이 숙청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도함.
- 방송은 “조선(북한) 당국이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함.
- 또한, 지난 7월 경질된 리영호 전 총참모장이 지난 10월 조선노동당으로부터 반당 반혁명분자, 군벌주의자로 규정됐으며 리영호 부인의 마약거래 혐의가 적발됐다고 일본 언론매체가 보도하면서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소개함.

● 靑 “김정은, 충성심 따라 ‘군 수뇌부’ 대거 교체”(11/29,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에 따라 군 지도부를 대거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특히 김 제1위원장은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 격인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된 김정각 차수를 6개월 만에 경질하고, 군부 강경파 김격식 대장을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힘.
- 김 대장은 지난 2010년 황해도 일대를 관할하는 4군단장 당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주도한 군부 내 대표적 강경파 인물로서 한때 상장으로 강등되기도 했지만 최근 대장으로 복권됐음.

● 北김정은, 中대표단 면담…시진핑 친서 전달받아(종합)(11/30,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0일 방북 중인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하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보도함.
- 중국 공산당 대표단장인 리젠궈(李建國)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회의 진행 상황을 설명한 뒤 “전통적인 중조(북중)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

- 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이 전함.
- 리젠궈는 “두 당,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가꾸어 주신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다지고 훌륭하게 건설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조선 동지들과 손잡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임.
 - 이에 김 제1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회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며 중국이 공산당의 영도 아래 사회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데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방송이 전함.
 - 방송은 김 제1위원장이 접견에서 중국 공산당 대표단으로부터 시진핑 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 김정은동향

- 11/26,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 분주소장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11.26,중방)
 - 최룡해, 장성택, 김기남, 리명수, 리병삼 등 참가
- 11/26, 김정은 黨 제1비서, 11.26 ‘전국 사법검찰일꾼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법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전달(11.26,중통)
 -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법적 통제, △비사회주의 현상 차단을 위한 준법교양 강화 등 ‘수령·정책·제도·인민보위’ 강조
- 11/30, 김정은 黨 제1비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발휘한”(금수산태양궁전광장 공원 조성 등)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11.30,중방)
- 11/30, 김정은 黨 제1비서, 11.30 中 공산당 대표단(‘리건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면담 및 습근핑(習近平/시진핑) 총서기 친서 접수(11.30,중방·중통)
 - 北 : 김기남·김양건(黨 비서)·김성남(黨 부부장)
 - 中 : 왕가서(대외연락부장)·왕효휘(선전부 부부장)·류결일(대외연락부 부부장)·요증(감찰부 부부장) 및 류홍재(駐北 中 대사) 등 참석

나. 사회문화

- 北 영아·산모 사망률 1990년대초 보다 높아져(11/26, 연합뉴스)
 - 북한의 영아사망률(출생 후 1년 이내 사망)과 임신·분만 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하는 모성사망률이 1990년대 초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밝힘.

- 북한어린이를 지원하는 (새)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각종 국제기구 자료 등을 분석해 26일 내놓은 '2012년 북한 보건의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993년 1천명당 14.1명에서 2008년 19.3명으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남한은 9.9명에서 3.5명으로 낮아졌음.
- 2008년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남한의 5.5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7명)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모성사망률(10만명 분당 기준) 역시 1993년 54명에서 2008년 77명으로 높아졌음.

● **北, 자연재해 위험지수 세계 7위(11/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자연재해 때문에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독일 비정부 환경단체인 '저먼워치'(German Watch) 보고서를 인용해 29일 보도함.
- 저먼워치는 1992~2011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그 피해를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13년 국제 기후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기후위험지수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악화되어 전체 7위로 평가됐다고 밝힘.
- 단체의 라리사 뉴바우어 대변인은 RFA 측에 지난 20년간 북한에서 37건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며 북한은 해마다 평균 2건의 자연재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봤다고 전했으며,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본다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재난대처 능력이 취약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고 밝힘.

● **北김정은 '어머니날' 이어 '항공절'도 제정(11/29, 노동신문)**

- 북한이 우리의 공군에 해당하는 '항공대'가 창설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29일을 '항공절'로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동신문이 29일 전함.
- 신문은 이날 '승리와 위훈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향로'라는 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5월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찾아 항공대가 창설된 날을 영원히 기념할 수 있도록 11월 29일을 항공절로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힘.
- 또한, 김일성 주석은 1945년 11월 29일 신의주항공협회에서 한 '새 조선의

항공대를 창설자'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항공대 조직 구성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2년 뒤인 1947년 정규 비행대를 조직했다고 보도함.

■ 기타 (사회·문화)

- 노동당 출판사, 김정일 업적 선전도서 '백두산의 아들(4)' 출판(11.26,중통)
- 인민군·돌격대원들의 두달 남짓 기간 '검덕지구 폭우피해(태풍15호) 복구' 성과(2,000여 세대 살림집 건설·단천-백금산철도 개통 등) 치하(11.27,중통)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선박, 소말리아 해상서 시멘트 버리다 억류(11/26, 엔케이뉴스)
 - 북한 선적의 화물선이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못쓰게 된 시멘트를 몰래 버리다 소말리아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엔케이뉴스가 26일 보도함.
 - 26일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엔케이뉴스'(www.nknews.org)가 소말리아 현지 라디오 방송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소말리아 반자치주인 폰트랜드 보안당국은 항구도시인 보사소 연안에서 북한 선박인 'M.V.대산(Daesan)'호를 억류함.
- 北, 세계지방자치연합 가입 추진(11/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도시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지식·기술을 공유하는 국제단체인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7일 전함.
 - 북한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제4차 아시아태평양 지부 총회에 '조선도시연합' 대표 두 명을 파견해 정회원 가입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번 총회에 참가한 회원 대다수가 북한의 가입에 찬성의사를 보여 다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회의에서는 북한이 정회원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부 관계자가 밝힘.

- **美민간단체, 北에 300만달러 의료지원(11/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이 지난 10월 북한에 3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보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함.
 - 배편으로 북한에 지원된 물품은 비타민을 비롯한 영양제, 어린이 해열제, 안과 및 치과 의약품 등이며 결핵과 간염 환자의 영양 지원을 위한 고기 통조림과 야채국도 함께 전달됐으며, 이번 의약품은 북한 내 29개 보건시설에 전달될 예정임.

- **北-몽골, 사법당국 협조 합의서 채택(1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몽골이 양국 사법당국 간 협조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통신은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와 몽골 사법성 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27일 평양에서 조인됐다”며 “리명수 인민보안부장과 테무진 사법상이 합의서에 수표(서명)했다”고 밝힘.

-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 첫 합의 채택(11/28, 연합뉴스)**
 -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절차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결의안은 고문과 불법적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포함 되었음. 또한, 지난해의 결의안과 비교하면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되었음.

- **北·中 황금평 단계적 개발...1.6km² 우선 추진(11/28,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관리를 추진 중인 북한 황금평 경제특구 가운데

일부 부지를 우선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이 28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중은 전체 면적이 14.4km²에 이르는 황금평 특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이 중 1.6km² 규모의 ‘초기 시작구역’을 먼저 건설할 방침임. 이곳에는 도로, 전력, 상·하수도, 통신, 가스, 난방 등 기반시설 이외에 황금평 특구 관리위원회 청사, 세관, 교역센터, 표준 공장건물, 보세창고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관리위 청사는 지난 9월 15일 현지에서 착공식을 했다고 밝힘.

● 중국 도문-북한 온성 겨울철 1일 관광 개시(11/28, 신화통신)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도문(圖們)시와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을 연결하는 겨울철 1일 관광코스가 개통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함.
- 이 관광코스는 아침에 두만강변에 있는 도문 출입국사무소를 출발한 중국인 관광객이 다리를 건너 온성군 남양구에 도착, 관광버스를 타고 하루 동안 온성군 일대를 관광하는 일정으로 오전에 왕재산 혁명박물관과 기념부조, 혁명사적비, 두로봉 등지를 둘러보고 오후에 아동문예공연을 관람한 뒤 저녁에 도문시로 돌아오는 일정이고, 매주 월요일~토요일에 출발하며 요금은 1인당 480 위안(8만 4천 원)임.

● 北 “유엔 인권결의는 적들의 정치모략 선전물”(1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적들의 정치모략 선전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유엔총회 제67차 회의 3위원회에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EU(유럽연합)와 일본이 주동이 되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는 판에 박힌 허위 날조자료들로 일관된 적대세력들의 정치모략 선전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함.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서방 세력들은 날로 높아만 가는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위상을 깎아내리려고 해마다 가소로운 정치협잡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유럽국 상대 평화자동차 투자유치 노력(11/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평양에 상주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외교관들의 평화자동차 공장 시찰을 최근 주선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폴란드 대사관 관계자를 포함해 평양에 상주하는 EU 국가의 외교사절들이 이달 초 북한 외무성 주선으로 평화자동차(현지 법인명 평화자동차총회사) 남포공장을 시찰했다고 폴란드 외교부가 밝힘.
 - 북한은 이번 시찰에서 평화자동차가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차량을 조립·생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승용차를 비롯해 밴, 지프, 소형버스 등 1만대의 차를 생산했다고 설명함. 또 공장시설을 연간 10만 대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충해 완성차 수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 **中리젠궈 전인대 부위원장 방북(종합2보)(11/29,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중국의 리젠궈(李建國)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대표단이 29일 평양에 도착, 방북 일정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젠궈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으며, 대표단은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샤오후이(王曉暉) 중앙선전부 부부장, 류제이(劉結一) 대외연락부 부부장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힘.
 - 북한 측에서는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과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 등이 비행장에 나가 대표단을 맞이했으며, 중국공산당 대표단은 방북 첫 일정으로 평양 만수대에 세워진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참배함.

나. 6자회담(북핵)

- **IAEA “북한, 새 경수로 건설 진척”(11/30, 연합뉴스)**
 - 북한은 핵폭탄용 물질을 생산하는 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더욱 진척시켰다고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9일(현지시간)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한 IAEA 이사회에 참석해 “북한이 경수로 공사를 계속해왔으며 주요 건물 외장작업을 대체로 마쳤다”고 밝혔으나, IAEA가 북한 경수로의 설계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언제 가동을 시작할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함.

3 대남 동향

- 北신문 ‘대선개입설’ 반박...“누가 되든 신경 안 써”(11/28,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이날 ‘대선개입설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날조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남조선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가가 아니라 북남관계를 개선하려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데 주의를 돌리고 있다”며 “이것은 북남관계의 주체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이것을 두고 대선개입이니 뭐니 하는 것이야말로 피해망상증에 걸린 자들의 생트집”이라고 주장함.
 - 또 “우리는 남조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며 “그러나 우리는 남조선 통치배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반대하면서 북남관계를 해치고 민족의 운명을 농락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함.

기타 (대남)

- ‘北 연평도 포격도발’ 2주년 계기 ‘지휘소연습’ 등에 대해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호전적 정체만 드러내 보일 뿐”이라고 비난(11.27, 평방·노동신문·중통/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무모한 도발)

12.01-12.02

12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군사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기록영화 통해 김정일 육성 추가 공개(종합)(12/2,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12월17일)를 맞아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준비 중인 북한이 2일 조선중앙TV를 통해 김 위원장의 젊은 시절 육성을 추가로 공개함.
 - TV는 이날 오전 ‘어버이 장군님 노동계급과 함께 계시여’라는 제목의 기록 영화를 통해 김 위원장이 생전 각종 생산현장과 건설현장 등을 돌아다니던 장면을 방영하며 김 위원장의 육성 강연을 공개함.
 -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김일성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가장 정확한 지침과 방도라고 주장하며 “혁명 위업의 전투적 승리를 위해 힘써 몸바쳐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함.

김정은동향

- 12/1, 김정은 黨 제1비서, 12.1 ‘사회과학원’ 창립 60돌 관련 과학자·일꾼들에게 서한(우리의 사회 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전달(12.1,중통)
- 北, 12.1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서한’ 전달모임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1,중통·중방)
- 최영림(내각 총리, 서한 전달),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김용진 등 참가
- 12/1, 김정은 黨 제1비서, 12.1 라오스 정부수립 37돌 즈음 ‘쫄말리 싸이나썸’ 주석에게 축전(12.1, 중통·중방)
- 최영림(총리)·박의춘(외무상), 12.1 라오스 수상과 외무상에게 촛불 축전(12.1,중통·평방)

나. 군사

- 北, 이달 10~22일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종합2보)(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1일 공식 발표한 것을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며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으로 발사하겠다고 말했다고 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은 전번(지난번) 위성과 같이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운반로케트는 ‘은하-3’이라고 설명했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4월 진행한 위성발사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하고 위성과 운반 로케트의 믿음성과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끝냈다”며 “이번 위성발사는 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일본 등 관련국에 로켓발사 계획 통보(12/2, 연합뉴스)

- 북한은 이달 중순 발사할 장거리 로켓이 지나가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등 관련 국가들에 로켓 발사 방침을 별도로 통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그러나 아직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장거리 로켓 발사 정보를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으며,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로켓 발사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해당국가의 항공관제 당국에 발사 시기와 경로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이와 관련,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본 등이 통보받은 내용은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an)로, 항공당국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으며, 북한은 전날 발표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의 담화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위성발사와 관련해서도 해당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라고 밝힘.

2 대외 관계

- 北, 10월 中곡물 수입량 작년比 62% 감소(12/1,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가을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함.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D) 선임연구위원이 1일 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월 중국에서 밀가루, 쌀, 옥수수, 콩 등의 곡물을 2만2천331t 수입했는데, 이는 올해 9월 수입량 3만5천730t보다 38% 줄어든 것이며 작년 동기(5만 9천 369t)에 비해서는 62%나 감소한 수준임.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박근혜, 대북정책 명백히 밝히라” 공개질의(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일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한 직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공개 질문을 던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이날 발표한 ‘공개질문장’에서 “최근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는 대북정책 공약에서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에게 대북정책과 관련한 기본입장이 무엇이며 앞으로 북남관계를 실지로(실제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 조평통은 7개 질문이 담긴 공개질문장에서 “박근혜가 들고나온 ‘선 핵포기론’은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000’과 한치도 다른 것이 없으며 그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북한인권법ियो 뭐요 하는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북한인권법 추진을 비난함.

- 조평통은 이 밖에도 천안함 사건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강화, 기존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통일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는 대세를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北로켓 1단 추진체 서해 낙하 예정(12/2, 연합뉴스)

- 북한이 예정대로 이달 중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1단 추진체는 우리나라 서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함.
- 정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이 이달 10~22일 중 오전 7시부터 12시 사이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면서 “발사 후 1단계 추진체는 우리나라 서쪽 해상에,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낙하할 예정”이라고 밝힘.
- 북한은 이런 내용을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an)로 일본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장거리 로켓 발사 정보를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전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中매체 인용 나로호 발사 연기 보도(12/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2일 나로호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다는 소식을 중국 매체를 인용해 뒤늦게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보도함.
- 방송은 이날 중국 관영 인민일보사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 보도를 인용, “남조선에서 운반 로케트 나로호에 의한 3차 위성 발사가 실패했다고 한다”고 전함.
- 또 “환구시보는 남조선에서 위성발사가 2009년 8월과 2010년 6월에 진행됐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며 “위성발사 연기는 올해에 들어와 세 번째”라고 덧붙임.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03-12.09

12 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1일부터 김정일 1주기 애도기간 설정(12/3,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17일)를 앞두고 이달 초부터 애도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정부 소식통은 3일 “북한이 이달 1일부터 김 위원장에 대한 애도기간을 설정하고 ‘애도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타임 올해의 인물’ 후보 선정 보도(12/4, 통일의 메아리)
 - 북한의 새 대남방송인 ‘통일의 메아리’ 방송이 4일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오른 내용을 개국 방송의 첫 소식으로 보도해 관심을 샀음.
 - 이날 대남·대북방송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민간단체인 동북아방송연구회에 따르면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1일 오전 7시 내보낸 첫 방송에서 남한 언론을 인용, 김 제1위원장의 ‘올해의 인물’ 선정 내용을 첫 소식으로 전함.

- 北 “간부들 당정책 의문시 경향..배은망덕”(12/6, 연합뉴스)
 -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최근 주요 간부들의 보신주의를 강하게 질책하며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이 문건은 “문제는 아직도 적지 않은 일꾼들 속에서 ‘무엇이 걸렸소 무엇이 부족하오’ 하면서 심한 보신주의, 요령주의에 빠져 말로만 당 정책 관철에 대해 웨치고(외치고) 진짜로 한 몸 내대지(던지지) 않고 있는데 있다”고 지적함.
 - 문건은 이어 “문제는 당 정책을 대하는 우리 일꾼들의 사상정신 상태에 있다. 최근 일꾼들 속에서는 당 정책에 대해 의문시하고 그 집행을 걸써(허술하게) 대하는 것과 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유해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것은 당과 수령의 명령, 지시에 대한

- 흥정이고 전면도전이며 사상적으로 변질되고 도덕도 의리도 없는 배은 망덕한 것”이라고 질타함.
- 문건은 “일부 일꾼들 속에서 원칙도 없고 신념도 없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 어느 나라 식이요, 무슨 식이요 하면서 남의 것을 덮어놓고 미화하고 무턱대고 받아들여려고 하고 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사대주의와 자기 것에 대한 허무감에 있다”고 밝힘.

● 北 “올해는 새로운 주체 100년 대진군 첫해”(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추진된 각종 사업을 결산하며 지난 1년을 “새 시대를 개척한 역사의 기적”, “새로운 주체 100년 대진군의 첫해”라고 강조함.
-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고 땅을 치며 쓰러졌던 천만군민이 김정은 동지의 손길에 이끌려 역척같이 일떠서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장엄한 진군을 개시했다”며 “위대한 유훈을 받들어 강성조선의 새 시대를 개척하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했다”고 주장함.
- 또, 구체적인 성과로 지난 4월 ‘태양절’ 경축행사 등 각종 기념행사와 일꾼대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희천발전소 준공, 평양시내 공원건설, 모란봉 악단 공연 등을 꼽았음.

● 北, 신임 쿠웨이트 대사에 서창식 임명(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신임 쿠웨이트 대사로 서창식 전 외무성 국제기구국 국장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밝힘.
-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에 의하면 쿠웨이트 주재 조선(북한) 특명전권대사로 서창식이 임명됐다”고 전함.
- 서창식은 오랫동안 국제기구 관련 분야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1996년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으로 시작해 국제기구국 국장에 오른 인물임.

■ 김정은동향

- 12/5, 김정은 黨 제1비서, 12.5 김기남(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굴진공)과 리옥심(특류영예군인)의 결혼에 ‘감사와 결혼상’ 전달(12.5,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내각총리), 양각도체육촌 및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 요해(12.4,중통·중방)
- 평양인건사공장 준공식, 12.5 최영림·문경덕 등 참가下 진행(12.5,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12.7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 현지요해(12.7,중통)
- 김정일의 함경남도 현지지도('11.12) 기념보고회, 12.9 태종수(咸南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진행(12.9,중방)

나. 군사

● 北, 美푸에블로호 평양 보통강변 전시 계획(종합)(12/3, 연합뉴스)

- 북한이 내부적으로 '대미 항전'의 전리품으로 선전해온 미국 푸에블로호가 평양 대동강변에서 보통강변으로 옮겨 전시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연합뉴스가 이날 북한 조선중앙TV를 분석한 결과 중앙TV는 지난달 30일 '새로 일떠서는(건설되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에서 "적무장 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보통강반(보통강변)에 진열되게 됩니다"는 한 군관의 말을 소개함.
- 북한은 지난 9월부터 보통강변 근처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현대적으로 고치는 공사를 본격 진행하면서 푸에블로호를 전시할 공간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北, 4월 로켓 실패원인 1주일 만에 찾아(12/5, 조선신보)

-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5일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실패한 것과 관련, "(발사 실패) 1주일 후 그것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원인에 대해 해명을 끝냈다"고 밝힘.
- 또 10~22일로 예정된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의 배경에 대해 "2012년 마지막 달의 위성발사 계획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언 실행의 산 모범"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년 두 번째의 인공위성 발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조선의 국가발전계획이 자체의 시간 표에 따라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신문은 이어 "조선의 위성은 기념일을 장식하기 위해 쏘아올리는 상징으

로서의 ‘축포’가 아니다. 국가건설의 견지에서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에 맞춘 ‘축포’라는 외부 분석을 일축함.
 - 또 “‘광명성’ 계획은 따로 있다. 2012년 설정된 실용위성의 궤도진입은 일시적 시련을 겪었던 조선이 연대와 연대를 뛰어넘는 비약을 이룩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다계단으로 변이 나게 하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함.

● **北, 은하3호보다 더 큰 로켓도 개발할 것(12/7,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7일 북한이 앞으로 더 큰 대형 로켓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이날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의 필수적 공정’이라는 글에서 “광명성 3호 발사가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며 “다음 단계는 정지위성의 개발이다. 은하 3호보다 더 큰 대형 운반 로켓의 개발에도 착수한다”고 설명함.
- 또한, 신문은 “조선에서 올해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다”며 “이 계획의 첫 단계 사업이 첫 실용위성 광명성 3호 발사”라고 강조하면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신설된 서해위성발사장은 최대 400t의 운반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게 설계됐다”며 은하 3호(91t)보다 큰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시사함.

● **北로켓 기술적 문제인듯..어제부터 이상징후(종합)(12/9, 연합뉴스)**

-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시기 조정 검토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뤄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이 문제에 정통한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시기 조정 검토 발표를 한 이유와 관련, “기술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어제(8일) 낮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전했으며, 이와 관련,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 주변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짐.

■ **기타 (군사)**

- [우주공간기술위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12.8)] ‘광명성-3호 2호기 발사를 위한 준비사업을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 중인 과정에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어 발사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심층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12.9.중통·평방)

다. 사회·문화

● 北 “다언어 번역 컴퓨터프로그램 개발”(12/3,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3일 ‘조선어(한글)’와 3개 이상 외국어의 번역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이날 우리민족끼리가 밝힘.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조선친선연합회 연구집단이 최근 조선어 중심의 다언어 번역체계를 개발했다며 “이 번역체계는 조선어와 로어(러시아어), 중어, 영어, 일어 사이의 임의의 쌍방향 번역을 컴퓨터(컴퓨터)에 의해 진행하는 조선어 중심의 첫 다언어번역프로그램”이라고 전함.
- 웹사이트는 이 번역프로그램의 명칭은 ‘별’이며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열린 제12차 전국 발명 및 새 기술 전람회에서 1등상을 받았다고 소개함.

● 북한 과학기술자·무역일꾼 중국어 학습 열기 후끈(12/5, 신화통신)

- 북한과 중국 간 경제 협력이 가속하는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 과학기술자와 무역 종사자를 중심으로 중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5일 보도함.
- 통신은 평양발 기사를 통해 평양 인민대학습당이 운영 중인 직장인 대상 무료 외국어 교육 과정을 소개하면서 현재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등을 제치고 중국어 강습반의 규모가 제일 크며 가장 인기 있다고 전함.

● 北 “온 사회에 혁명적 법질서 확립해야”(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5일 전국법무일꾼대회를 열고 “온 사회에 혁명적 법질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
- 통신은 이날 “전국법무일꾼대회가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는데, 법무일꾼은 검찰소, 재판소, 인민보안부 등 각종 기관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를 뜻하며 북한에서 전국 단위의 법무일꾼 대회가 열린 것은 2007년 2월 28일 이후 5년 9개월여 만임.
- 이번 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법무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온 사회에 혁명

적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강성국가 건설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갈 결의를 표명했다”고 밝힘.

● **北 식량배급량 10월부터 회복세(12/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식량배급량이 지난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방송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1~5월 1인당 하루 평균 396g을 유지하던 북한의 식량 배급량이 6월 380g, 7월 345g, 8·9월 310g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10월엔 380g으로 늘어난데 이어 11월에는 올 상반기 수준인 390g으로 회복했다고 전했으며, 북한의 지난 달 배급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 365g보다도 6.8%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임.

● **北 공안기관들, ‘불순분자 소탕 캠페인’ 나서(12/6, 연합뉴스)**

- 북한의 공안 사법당국들이 최근 내부 소요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불순분자 소탕 캠페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정부 고위당국자는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검찰과 경찰, 국가안전보위부 등 공안 사법기관들이 불순분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면서 “불순분자 검거 실적을 제출하라는 지시도 많이 내리고 있다”고 말함.

● **FAO, 북한 4분기 식량부족국가로 또 지정(1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함.
- FAO는 지난 6일 발표한 올해 4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곡물 수확량이 2년 연속 증가했지만,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으며, 북한이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경제난 지속과 농기계·비료의 부족을 꼽았음.

● **北대형상점, 판촉활동 위해 ‘캐시백’ 제도 도입(12/8,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위치)**

- 북한의 대형상점이 소비자의 구매욕을 높이려고 지출 금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위치가 8일 전함.

- 웹사이트가 최근 게재한 사진에는 평양의 대표적인 대형상점인 광복지구 상업중심이 지난 4월 구매자들에게 사용금액의 5%를 상품권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행사를 갖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 사진은 한 북한 방문자가 광복지구상업중심 내부에 걸린 대형 알림판을 찍은 것으로, 알림판에는 상품권 형식의 '우대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음.
- 우대표 발급 기간은 4월 15일부터 29일까지로 고객이 10만 원 이상 물건을 사면 5천 원 상당의 우대표를, 20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1만 원 상당의 우대표를 발급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20만 원 이상 구매자는 추가로 상점 내 식당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음.

2 대외 관계

- **北 “독도는 조선의 영토”…일본 명칭 검토 비난(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일본 정부가 독도 봉우리의 지명을 일본 명칭으로 짓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4일 “조선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못 할 침해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독도 봉우리 일본 작명은) 독도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이 보다 노골적인 단계에서 감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지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영토주권을 소유한 민족에게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독도는 지난날 탐험가들에 의해 마음대로 이름 붙여지던 신대륙도 아니며 미개척지도 아니다”며 “먼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에 의해 개척되고 오늘도 우리 민족의 주권이 당당히 미치는 조선의 신성한 영토”라고 강조함.
- **쿠바, 9년만에 유엔 통해 대북 지원(12/5, 자유아시아방송(RFA))**
 - 쿠바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약 16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WFP의 대북사업인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비상식량 지원’을 통해 굶주릴 위기에 놓인 북한의 240만여 어린이, 임산

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유엔을 통한 쿠바의 대북 지원은 2003년 WFP를 통해 약 43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것임.

- **北-中관광, 잦은 눈 탓에 예년보다 일찍 동계휴업(12/7, 중국신문사)**
 - 중국의 변경도시와 북한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북·중 관광 루트가 올해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겨 겨울철 휴업에 들어갔다고 7일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일 랴오닝성 단둥(丹東)에 있는 중국 여행사들에 “단둥에서 출발하는 신의주 1일 관광을 제외한 다른 관광코스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통지했음.

- **北, 15~20일 외국 관광객 접수 중단(12/8, NHK)**
 - 북한이 중국 여행사에 오는 15~20일 사이 외국인 관광객 접수 중단을 통보했다고 일본의 NHK방송이 8일 보도함.
 - 방송에 의하면 북한은 중국 동북부의 랴오닝성 여행사 등 북한 관광 취급 여행사들에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외국인 관광객 접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함.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日 정부의 ‘독도 봉우리 일본식 작명 검토’ 관련 ‘독도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日 반동들의 책동이 보다 노골적인 단계에서 감행되고 있다’며 ‘재침책동이 실행단계에 이르렀다’고 비난(12.4.중통/용납 못할 주권침해행위)
- 美 오바마 대통령의 再選 후 첫 베트남·태국 등 亞-太지역 순방과 중요성 강조(미국은 앞으로 태평양강국로 남아있을 것 등)는 “집권기간에 亞-太지역에 군비경쟁과 새로운 냉전바람을 몰아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12.6.중통·노동신문·평방/위험한 세계제패 기도)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 인권결의안 제안국 참여는 정치도발”(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남한 정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우리에 대한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인민사랑의 정치가 가장 훌륭하게 구현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애당초 인권문제란 존재하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힘.
 - 또 “인권문제는 오히려 미국 식민지이며 반인민 파쇼적 통치로 악명높은 남조선에 있다”며 “유신독재를 되살리려는 새누리당의 재집권 책동으로 앞날의 희망마저 기약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임.

- **박근혜, 남북선언 이행문제 의도적 회피(12/6, 조선신보)**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최근 TV토론회에서 밝힌 대북정책과 관련해 “기득권자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느라 애쓰는 허수아비”라고 비난함.
 - 신문은 “토론에서 박 후보는 6·15 이후 남측 정부가 추진한 협력교류사업을 북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퍼주기’로 단정하고 대북강경책의 추진을 정당화했다”며 “이명박 정권 논리를 되풀이했다”고 비난함.
 - 또 지난 5일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발표하면서 남북정상합의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선 국면에서도 북남선언 이행문제를 피해가고 있다”,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금강산관광 어떤 일 있어도 재개돼야”(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8일 “금강산관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이날 발표한 진상공개장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다시 이어지게 하려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또, 진상공개장은 “이명박 역도와 새누리당이 집권 5년간 저지른 가장 큰 죄행의 하나는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킨 것”이라며 “괴뢰 보수패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금강산관광을 계속 가로막아 나서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고 주장함.

■ 기타 (대남)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16호(12.6), 우리 정부의 ‘北인권결의안(유엔 총회 제3위원회) 공동 제안국’ 참여는 “우리(北)에 대한 적대분위기를 조성하여 反北 국제공조를 실현해보려는 흉책”이라고 비난(12.6.중통·평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10-12.16

12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군사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일 1주기 앞두고 첫 추모모임(12/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를 맞아 노동계급과 조선직업총동맹(직맹) 구성원들의 맹세모임이 11일 평양 만수대언덕에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 동상 앞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리영수 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현상주 직맹 위원장 등 직맹 일꾼들과 직맹원,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김 위원장을 추모하며 묵상했고 김 주석과 김 위원장 동상 앞에 헌화함.
 - 이어 현상주 위원장이 김 위원장 유혼을 지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문을 선창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15만명 동원 '위성 발사' 경축 군중대회(12/14, 조선중앙TV)**
 - 북한은 위성 발사에 성공한 지 사흘째 되는 14일 평양에서 이를 경축하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TV이 이날 보도함.
 - TV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를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軍民)경축대회'를 생중계하면서, 15만여 명의 평양 시민이 김일성광장과 대동강 건너의 주체사상탑광장에 운집했다고 전함.
 - 문경덕 노동당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경축대회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도춘 당 군수담당 비서,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병삼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과거 군수공업부) 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했으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행사에 불참했으며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모습은 주석단에 보이지 않음.

- 김기남 당 선전담당 비서는 경축보고를 통해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운반로켓 은하 3호로 명실공히 선군 조선의 것인 과학기술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충정의 선물이며 장군님(김정일)의 유훈 중의 유훈을 관철한 민족사적 대경사”라고 말함.

● **北김정은, ‘장거리 로켓’ 발사 직접 지휘(2보)(12/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2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아 장거리 로켓 ‘은하3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로켓 발사 당일인 지난 12일 오전 8시 ‘은하 3호’ 발사와 관련해 ‘최종 친필명령’을 로켓 발사를 담당하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에 하달하고 발사를 1시간 정도 앞둔 오전 9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음. 김 제1위원장은 발사 준비 과정을 점검한 후 발사 명령을 내렸고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참관함.
- 김 제1위원장은 “‘광명성 3호’ 2호기는 철두철미 우리의 힘과 기술, 지혜로 개발 제작된 주체의 위성”이라며 “인공지구위성을 극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킴으로써 우주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가 세계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에 당당히 올라섰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함.

● **北김정은 “위성발사는 종합적 국력의 일대 과시”(12/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서해안에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장을 직접 찾아 이번 로켓 발사를 성공시킨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이른 새벽에’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축하했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음.
- 통신은 “헌신과 노고를 다 바치고도 그 성과를 자기들(과학자·기술자)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불렀다”고 현장 분위기를 묘사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평양 근처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종합지휘소'에 들러 로켓 발사과정을 담은 녹화자료를 다시 봤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일 1주기 중앙추모대회 실황 중계(종합)(12/16, 조선중앙TV 등)

- 북한이 16일 평양체육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보도함.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8분까지 약 70분간 진행된 추모대회를 일제히 실황 중계했는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경희 노동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했지만 별도로 연설하지는 않음.
- 김영남 위원장은 김기남 당 비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의 추모사를 통해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민족사적 공적을 이룩했다”고 말함.

■ 김정은동향

- 12/11,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대 원호사업에 모범을 보인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김윤민' 등에게 감사 전달(12.11.중방)
- 12/13,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에 제설 트랙터 전달(12.13, 중방)
- 12/14, 김정은 黨 제1비서, 12.12 8시 '로켓발사 친필명령 하달' 및 9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방문하여 발사과정 참관(12.14.중통·중방)
 - “과학기술이 도달한 높이를 만방에 과시한 자랑스러운 쾌승”이라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
- 12/15,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광명성-3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들 축하 및 기념사진 촬영(12.15, 중통·중방)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서해위성발사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하여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것’ 강조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숙(김정일 생모) 생일(12.24) 즈음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개막식, 12.12 김기남(黨 비서) 등 참가자 빙상관에서 진행(12.12.중통·평방)
- 최영림(내각총리), 평양곡산공장 ·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 · 평양금속건재공장 · 평양무궤도전차공장 · 류원신발공장 현지 요해(12.13.중통)

나. 군사

● 北 “위성발사 성공…김정일 유훈 관철” 발표(종합2보)(12/12,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등)

- 북한은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해 “인공지구위성을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을 통해 보도함.
-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보도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로켓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다”며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로켓 발사 사실을 처음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2시 52분 보도를 통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운반로켓 ‘은하 3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며 ‘은하 3호’가 이날 오전 9시 49분 46초에 발사된 뒤 9분 27초 만인 9시 59분 13초에 ‘광명성 3호’ 2호기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함.
-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광명성 3호’ 2호기는 97.4도 궤도 경사각으로 근지점 고도 499.7km, 원지점 고도 584.18km인 극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95분 29초이며, 이 위성에는 지구관측에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함.

● 北노동신문 “우주진출은 막을 수 없는 세계적 추세”(12/12,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우주진출은 막을 수 없는 세계적 추세’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주개척이 시대의 추세로 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올해에만도 세계 여러 나라가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외국의 우주개발계획과 성공사례를 소개함.
- 신문은 올해 초 러시아가 쏘아 올린 우주화물선 ‘프로그레스’호가 국제우주정거장(ISS) 도킹에 성공했다고 전하며 “프로그레스호는 지구궤도를 도는 우주정류소에 먹는 물과 연료, 음식 그리고 과학장비를 전달하는 사명을 지닌 우주기구”라고 소개함.
- 또한, “(중국의) 16번째 위성은 서창(시창·西昌) 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 3호’(長征 3C) 운반로켓에 실려 발사됐다”며 “이 위성은 지구정지위성으

로 이전에 발사된 15개의 북두(베이더우) 항법위성들과 망을 형성하고 가동함으로써 구역봉사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덧붙임.

● 北 “로켓궤적 변경하는 고도의 유도법 적용”(12/14, 노동신문)

- 북한은 지난 12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에 고도의 위성 관제 기술을 적용, 로켓 궤적을 중간에 변경했다며 “우주강국이라고 일컫는 나라 중 처음부터 이런 높은 기술로 시작한 나라는 없다”고 14일 노동신문을 통해 주장함.
- 신문은 이날 ‘조선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이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은하 3호’ 로켓에 탑재된) ‘광명성 3호’ 2호기는 위성 역사에 드문 두 개의 고개를 넘었다”며 눈이 쌓인 겨울이라는 기상조건에서 로켓 발사에 성공한 것과 날아가는 로켓의 궤도를 중간에 변경해 ‘위성’을 궤도에 올린 것을 거론함.
- 신문은 이달 초 눈이 많이 내린 점을 언급하며 “위성 발사 역사는 겨울철에 위성을 쏘아 올려 성공한 빈도수가 매우 낮다는 것을 기록해왔다”며 “우리 위성이 강설을 박차고 오른 것만 봐도 그 위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함.
- 특히 로켓의 실제 궤적에 대해 “운반 로켓의 2계단(2단)을 국제해상통로와 주민 지대에 떨어지지 않고 공해에 떨어기 위해 자리길(궤적)을 꺾어야 했던 사연…위성 밑에 있는 나라들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우정 굴곡을 만들어 선화시킨 자리길”이라며 “위성 관제의 고도의 기술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위성, 지상에서 통제 안 되는 상태(12/14,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2일 쏘아 올린 위성이 현재 지상에서 통제되지 않는 상태라고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한 관리가 일본 NHK방송을 통해 14일 밝힘.
- 이 관리는 이날 방송과 인터뷰에서 “어느 모로 보나 북한의 물체는 지상에서 통제가 안 되고 있다”며 “그 물체와 지상의 관제센터가 정보를 주고 받은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함.
- 이 관리는 ‘위성(satellite)’ 대신 ‘물체(object)’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비행이 불안정한 느낌을 주지만 궤도를 벗어날 위험은 아직 없다. 이 물체를 계속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임.

기타 (군사)

-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운반로켓 은하-3을 12.12 9시 49분 46초에 발사, 9시 59분1 3초에 궤도진입’ 등 ‘광명성-3호’ 발사 및 궤도진입 상세한 설명과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한 것”이라고 강조(12.12,중통·중방)
- “민족의 위력을 과시하는 자랑찬 계기”라고 自祝 및 “국제법에 부합되는 정정당당한 조치”라고 주장(12.12,평방/우리 민족의 국력을 과시한 역사적 사변)
- ‘광명성-3’호 발사 성공으로 평양시 등 전역은 “명절분위기에 휩싸였다”며 강철(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리현실(조선과학기술총연맹 부원) 등 각계층 주민들 반향(12.12,중통·중·평방)
- ‘강성국가 건설에서 이룩한 역사적 사변, 과학기술 위력 시위’라고 박정민 등 평양시민들 반향(12.12,중통/조선이 위성발사소식을 보도, 시민들의 감격 고조)
-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관련 동정】
-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발사에 성공한 조선의 과학자들에게 보내는 축하방송’(12.13,평방)
-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떨친 역사적 사변’(12.13,평방), ‘위대한 장군님 우리 앞날을 축복하신다’(12.13,중방), ‘위성도 우주에 조선의 존엄도 우주에’(12.13,중방)
- 국가과학기술위 국장 장룡혁, 직총중앙위원장 현상주, 교육위 부상 오민, 평양시인민위 국장 현광영 등과 각계층 인민들 반향 보도(12.13,중방·평방)

다. 사회·문화

● 北, 자전거 이용 장려…평양에 자전거전용도로(12/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로 만드는 등 주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평양시에서는 지난 1일부터 차도와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따로 정해졌고, ‘자전거도로들을 새로 내왔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북한)에서 운동과 교통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있다”며 “평양시의 도로들에 자전거도로들이 따로 정해졌다”고 밝힘.
- 또한,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 노선이 있는 곳에서 많은 경우 걸음길(인도)을, 그렇지 않은 데서는 차도로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했다”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흰색으로 표식선들을 쳐주는 사업이 짧은 기간에 끝났다”고 전함.

- 北 “보기 드문 추위…전지역에 20~38cm 눈”(12/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전지역에 지난 4일부터 예년에는 좀체 볼 수 없었던 추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중앙기상예보연구소 리철수 부소장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겨울 날씨는 중위도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워지기 시작한다”며 “그러나 대륙 고기압이 북위 60~80도 부근에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합류하면서 최근 맵짠(매서운) 추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함.

- 평양 주민들 성공 소식에 환호(종합)(12/12, 교도통신; APTN)
 - 북한 평양 주민들은 로켓 발사와 위성 궤도 진입이 성공했다는 공식 보도를 접하고 기쁨을 나타냈다고 교도통신과 APTN이 12일 보도함.
 - 교도통신은 조선중앙TV가 정오를 지나 특별방송 형식으로 ‘은하 3호 로켓을 통한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가 성공했으며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하자 평양 시내 고려호텔의 식당과 카페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이 손뼉을 쳤으며 일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평양발 기사에서 전함.

- 北 중앙TV 간판 아나운서 교체(12/13, ABC)
 -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 소식을 ‘특별방송’으로 전할 때 등장한 여성 아나운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미국 ABC 방송이 13일 전함.
 - 방송은 중앙TV에 등장해 북한이 로켓 발사 성공 소식을 특별방송으로 전한 여성 아나운서가 알려지지 않은 앵커라고 보도하면서, 이 여성 아나운서가 북한 TV 화면에 등장하는 몇 명의 새롭고 젊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고 전했지만, 이외의 구체적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2 대외 관계

- **中 훈춘-北 나선 버스 운행 확대 추진(12/11, 연변일보)**
 - 중국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시와 훈춘(琿春)시, 북한 나선시를 연결하는 정기노선 버스의 승객이 꾸준히 늘어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가 11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해당 노선을 정식 개통해 매일 2차례 운행 중인 중국 옌벤동북아여객운수그룹 등은 여객 수요 증가에 따라 37인승 버스를 추가로 투입해 운행 횟수를 매일 4~5차례로 늘릴 계획임.
 - 이 노선은 옌벤동북아여객운수그룹과 지린위베얼(吉林宇別爾)운수그룹, 북한 나선시육해운수총회사와 나선시관광총회사 등 북·중 4개사가 공동 개설했으며 중국 측 업체들이 300만위안(5억4천만원)을 투자해 버스 11대를 구매함.

- **WFP, 내년 대북식량지원 예산 1억 달러(12/12,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내년 대북지원 예산으로 1억 달러를 계획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WFP 아시아지부의 '2013년 사업예산'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10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발표한 세계 굶주림 지수(Global Hunger Index)에서 심각한 수준인 19점으로 평가돼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국가에 속한다며 내년 사업비로 1억 151만 8천 710달러(약 1천 91억 3천만원)를 책정함.

- **北, 15일부터 단둥-신의주 교역 중단(12/12,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17일)를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북·중간 최대 교역 루트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북한 신의주 간 수출입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 1주기를 앞두고 산업 시찰이나 무역을 위해 중국에 나왔던 북한 무역상들이 이번 주부터 서둘러 귀국길에 오르고 있으며, 북한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를 김 위원장 사망 1주기 애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행사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음.

- **北외무성 “위성 발사, 유엔 안보리 관여할 일 아니다”(1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성공적인 위성발사는 김정 일 동지의 유훈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위반’이니 뭐니 하며 부당하게 문제시해보려는 불순한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는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보편적인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서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그에 어긋나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적대시 관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결로써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임.
 - 또,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유관 측들이 이성과 냉정을 견지해 사태가 본의 아니게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번져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며 “누가 뭐라고 하든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계속 행사하면서 우주를 정복해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안보리 “北로켓 결의 위반”..추가 제재 경고(종합)(12/1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함.
 - 안보리 순번제 의장인 모하메드 룰리치키 유엔 주재 모로코 대사는 12일 (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평화차 박상권 사장 “北에 운영권 넘긴다”(12/14, 미국의소리(VOA))**
 - 통일그룹이 북한에서 가동해온 평화자동차의 박상권 사장이 회사 운영권을 북한에 넘긴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박 사장은 지난 7일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평화자동차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그(북한)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준다”며 자신은 보통강호텔과 평화자동차에서 명예이사장이나 명예사장으로 남아 기술 및 신용 등에 관한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中 허룽-北 삼지연 겨울철 관광코스 개통(12/15, 연변일보)

- 중국 지린성 허룽(和龍)시와 북한 량강도 삼지연군을 연결하는 겨울철 관광코스가 처음으로 개통됐다고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가 15일 보도함.
- 허룽시는 지린성에서 유일하게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함경북도, 량강도 등 2개 도와 마주한 시로, 북·중 국경의 총 길이가 165.5km에 달하는데, 이 시는 1992년 정식으로 대북 관광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겨울철에도 북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2일, 3일 코스를 열었음.
- 관광코스는 허룽 고성리 통상구를 거쳐 삼지연군에 도착한 뒤 삼지연대 기념비, 백두관, 백두산밀영옛집, 리명수폭포, 조선국가체육촌, 무산지구 승리기념탑 등 량강도와 함경북도 일대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짜임.

● ITU “北 위성 신호송출 정보 못받아”(12/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이용해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과 관련해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ITU의 산자이 아차야 선임 공보관은 ‘광명성 3호’의 상태와 신호송출 등을 확인해달라는 RFA의 요청에 대해 “북한이 지난 10일 기술적 결함으로 ‘광명성 3호’ 발사시기를 29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한 이후 아직 어떤 추가정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그는 따라서 북한의 로켓 발사나 위성에 대해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임.

● 北 금광 투자 中 기업, 첫 5성급 호텔 건설 지원(12/16, 호남일보(湖南日報))

- 북한의 금광 개발 투자에 나선 중국 기업이 북한 내 첫 5성급 호텔 건설을 지원한다고 호남일보(湖南日報)가 16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후난성 창사(長沙)에서 지난 14일 열린 제2회 후난성 국외 광산자원투자상담회에서 후난웨이진(緯金)투자그룹은 북한과 합작으로 금광을 개발한다고 발표함.
- 또한, 이번 프로젝트가 후난성 기업의 첫 대북 투자로, 여기에는 북한 최초의 5성급 호텔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함.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대변인, 12.12 장거리로켓 발사 관련 UN·美 등 유관국들의 우려에 대해 “유관측들이 이성과 냉정을 견지하여 사태가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번져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중동 문답(12.12,중동·중방)

3 대남 동향

● 軍 “北로켓 1단 추진체 잔해 인양 성공”(종합)(12/14, 연합뉴스)

-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의 1단 추진체의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우리 해군에 의해 인양됐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해군 청해진함이 1단 추진체의 잔해를 오늘 0시26분에 인양해 경기도 평택 2함대로 이송 중”이라며 “13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인양 작업이 8시간 반 가까이 만에 성공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해군 구조함인 청해진함이 현재 길이 10m, 직경 1.6m에 달하는 1단 추진체 잔해를 해군 2함대사령부로 이송하고 있다”면서 “새벽에는 평택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함.
- 우리 해군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일인 12일 오전 11시29분께 로켓의 1단 추진체 연료통으로 보이는 잔해를 군산 서방 160km 해상에서 발견, 고속단정(Rib)을 보내 해당 잔해를 줄로 연결해놓았으며, 이 잔해는 그날 오후 4시경부터 가라앉기 시작, 인양 당시에는 바다 밑 80m 지점에 낙하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

● 北 “남측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은 선거용 술책”(12/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적십자회는 14일 남한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가 최근 이산가족 모습

- 을 담은 영상편지를 제작해 북한에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 “(여당의) 재집권 기도를 위한 유치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이날 ‘상보’를 통해 “집권기간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협력 사업을 파탄시킨 장본인인 괴뢰역적패당이 ‘영상편지’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는 것이야말로 남조선 이산가족에 대한 우롱”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또 이전 정부가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을 현 정부가 모두 뒤엎었고 ‘5·24조치’로 북남 관계를 완전히 차단했다며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정권’을 쥐고 있는 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문제는 언제 가도 해결될 가망이 없다”고 덧붙임.

● **北노동신문 “南서 민주정권 들어서면 손잡을 것”(12/16,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남조선에서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번영을 바라는 민주정권이 선다면 기꺼이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이날 ‘악몽의 5년은 절대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원’의 글에서 “남조선에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면 인민이 불행해지고 북남관계도 진통을 겪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함.
- 또한, “이명박 패당과 새누리당이 집권 5년간 북남공동선언을 무참히 유린하고 북남관계를 완전히 말아먹은 것은 죄악 중의 죄악”이라며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한라산을 오가던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다시 끊어졌으며 금강산 관광 길이 막히고 개성공업지구가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됐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민족경제협력역 백서(12.16)] ‘새누리당과 보수패당은 기만적인 경제공약으로 민심을 유혹하여 재집권 실현을 꾀하고 있다’며 ‘기만적 술책에 절대로 속지 말고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고 주장 (12.16.중통·중방/남조선경제와 민생파탄 실상을 밝힌다)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17-12.23

12 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일 안치 금수산태양궁전 개관…김정은 참배(종합)(12/17,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등)**
 - 북한은 17일 오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를 맞아 그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을 거행했다고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를 통해 이날 보도함.
 - 매체들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일제히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을 실황 중계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의 부인 리설주는 이날 당·정·군의 고위 간부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입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고 전함. 특히 검은 상복 차림의 리설주는 배가 많이 부른 모습이어서 출산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임.
 - 김 제1위원장 부부의 참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김기남·최태복 당 비서, 현영철 군 총참모장 등 당·정·군의 고위간부들이 함께함.
 - 개관식이 진행된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는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간부, 군 장병, 근로자, 혁명열사 유가족과 ‘광명성 3호’의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그리고 주북 외교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임.

- **김정은, 김정일 1주기 추모행사에 우주기술자 초대(12/17, 이타르타스 통신)**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 추모행사에 은하 3호 로켓 발사를 성공시킨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특별히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17일 보도함.
 - 통신은 광명성 3호 위성을 실은 은하 3호 로켓 발사를 성공시킨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우주기지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17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열린 김 위원장 1주기 추모행사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평양으로 초대됐다고 전함.

● **北, 김정일 시신 일부 외신에 공개(12/18, AP통신)**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인 17일 방부 처리한 김 위원장의 시신을 일부 외신에 공개했다고 AP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북한이 전날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인민복을 입은 모습의 김 위원장 시신을 공개했다며 “북한은 그(김정일)가 사망한 뒤 그의 유리관이 놓인 홀을 처음으로 AP통신을 포함해 선택된 방문객들에게 개방했다”고 전함.
- 또 김 위원장의 시신은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시신의 몇 층 아래에서 붉은 천으로 덮여 있으며 김 위원장의 얼굴은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다고 통신이 설명함.
- 북한은 전날 최근 개보수한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을 하면서 고위 간부와 평양에 주재하는 일부 외신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의 시신을 공개한 것으로 보임. 또한,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이 사망한 뒤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러시아 전문가들을 동원,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은, 타임지 ‘올해의 인물’ 탈락(12/19, 타임;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강남스타일’ 가수 싸이(박재상)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 경쟁에서 막판 탈락했다고 타임지가 19일 보도함.
- 타임지는 인터넷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김 위원장이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심사위원단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토대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김 위원장은 인터넷 투표에서 563만 5천 941표를 얻어 미국의 방송인인 존 스튜어트(236만 6천 324표)를 더블스코어차로 제치고 1위를 했다고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미국잡지 타임이 ‘2012년의 명인’으로 모셨다”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560만여명이 투표함으로써 제일 많은 지지표를 받으셨다”고 소개함.

● **北김정은, 로켓 발사 20일 전 발사장 현지지도(12/20,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거리 로켓 발사 20일 전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을 현지지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함.

- TV가 20일 방영한 새 기록영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밑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 성과적으로 발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달 22일 로켓 발사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서해 발사장을 방문했다며 당시 현지지도 영상을 공개함.
- TV는 이어 김 제1위원장이 장거리 로켓 발사 6일 전인 이달 6일 평양 인근에 있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설명하면서, 김 제1위원장은 장거리 로켓 발사 당일인 지난 12일에는 발사 예정시각을 1시간 정도 앞둔 오전 9시에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다시 찾아 동창리 발사장에 있는 최춘식에게 화상과 전화로 로켓 발사와 위성의 궤도 진입과 관련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로켓 발사 이틀 뒤인 지난 14일에도 동창리 발사장을 찾아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격려했다고 덧붙임.

● 北TV, 김정일 열차·배 전시한 금수산태양궁전 공개(12/20, 조선중앙TV)

- 북한이 장기간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해온 금수산태양궁전 내부를 조선중앙TV를 통해 20일 공개함.
- TV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당·군·정 핵심 간부들과 함께 김 위원장 사망 1주기인 지난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 위원장 시신을 참배하는 장면을 이틀 뒤인 19일 방영함.
- 김정은·리설주 부부를 비롯한 참배객은 경계선이 둘러쳐진 김 위원장 시신 앞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방식으로 참배했으며, 일부 간부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함. TV는 그러나 참배객 앞에 놓인 김 위원장 시신은 보여주지 않음.

● 北, 함흥에 김정일 동상 제막…지방에선 처음(12/2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가 21일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은 “함남의 불길이 타오른 역사의 땅에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동상을 모신 것은 천출 위인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며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쳐 태양의 위업을 천만년 받들어 갈 함경남도 인민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열화같은 충정의 분출”이라고 전함.

-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 김 위원장의 동상이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동상 제막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김평해·곽범기 노동당 비서,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로두철·리무영·김용진 내각부총리를 비롯한 중앙의 고위간부들과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등이 참석함.

● 北,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임명 확인(12/21,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북한은 21일 김격식 인민군 대장이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TV는 이날 함흥시에 새로 만든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참석자를 소개하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격식 동지”라고 호칭했으며, 북한 매체가 김격식의 인민무력부장 임명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2007~2009년 군 총참모장을 지낸 김격식은 지난 2010년 황해도 일대를 관할하는 4군단장으로 재임하며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때 상장으로 강등되기도 했음.

● 北, ‘광명성 3호’ 발사 기여자 101명에 영웅칭호(1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2일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 성공에 기여한 101명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조선에서 최춘식 외 100명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에게 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됐다”며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2일 발표됐다”고 밝힘.
- 영웅칭호의 수여 배경에 대해 “그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를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필승의 신심을 북돋워주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책동하는 적대세력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렸다”고 소개

● ‘광명성3호’ 발사 축하연회에 참석한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12/22,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1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광명성 3호’의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를 위해 개최한 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함.
- 또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을 축하하는 은하수음악회의 공연 ‘돌파하라 최첨단을’이 이날 평양 인민극장에서 진행됨.
- 연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박도춘·김기남·최태복·김양건·김영일·김평해·곽범기·문경덕 당비서,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주규창 당부장,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이 참석

● 北, 젊은 세대 띄우기…“우리 주인공은 20~40대”(12/22, 노동신문)

- 북한이 최근 첫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의 발사 성공을 계기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격려하며 20~40대 젊은층을 부각하고 있다고 22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우주에 닿은 내 조국의 국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체교육의 터전에서 마음껏 배우고 실천 속에서 성장한 우리 주인공들의 나이는 30대, 40대”라며 “이런 쟁쟁한 지식인들이 위성과학기술 분야의 최첨단에서 있다는 것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더없는 자랑이며 긍지”라고 주장

● 北김정은, 생모 공개 않고 조모·부인만 띄우기(1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조모 김정숙의 95주년 생일(12월 24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통해 김정숙 찬양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함.
- 통신은 이달 18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탄생 95돌에 즈음해 새 우표가 나왔다”며 “(우표에는)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김정숙 동지의 영상이 모셔져 있으며 그이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이 형상돼 있다”고 전했다.

- 지난 19일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는 김정숙 생일을 맞아 직총(직업총동맹) 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열렸으며 20일에는 평안남도 속천군 문화회관에서 농근맹(농업근로자동맹) 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진행됐음.

● 北, 위성 발사 성공 기념우표·엽서 발행(12/23, 조선신보)

- 북한 조선우표사에서 위성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우표와 엽서, 달력 등을 제작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3일 전함.
- 조선우표사는 지난 12일 위성 발사 성공 소식을 듣고 나서 우표와 엽서, 달력을 서둘러 제작했다고 신문이 밝힘.

■ 김정은동향

- 12/17,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 12.17 ‘김정은 黨 제1비서와 부인 리설주’ 등 참가下 진행(12.17, 중통·중방·중앙TV/실황중계)
 - 리설주,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경희, 김격식, 박도춘,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양형선,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김정각,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박범기, 주규창,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태종수, 최춘식, 광명성-3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들, 駐北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등 참석
- 12/17, 김정은 黨 제1비서, 12.17 리설주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궁전 조성에 기여한 軍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감사문’ 전달(12.17, 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이 마련한 ‘연고자가족 일행들(해외 연고자가족)을 위한 위로연’, 12.18 김기남(黨 비서) 및 중국 항일혁명열사 장울화 가족일행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18,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해외동포들을 위해 마련한 연회, 12.19 김양건(黨비서) 재일본조선인추모대표단(배익주 총련 부의장) 재중조선인총연합회대표단(최은복 의장)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19, 중통)
- 김정일 軍 최고사령관 추대 21돌 및 김정숙 생일 95돌(12.24) 관련 ‘농근맹 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 12.20 평안남도 속천군문화회관에서 진행(12.20, 중통·중방)
-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 일꾼들, 12.20 새로 제작·발표된 기록영화(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도 밑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성과적으로 발사) 관람(12.20, 중통)
- 김정일 사망 1돌 추모행사에 참가한 해외동포대표단 성원들, 12.19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김정은제일송배자 옹호자가 되겠다’고 편지(12.20, 중통)

나. 경제

● 北 쌀값·환율, 김정일 1주기 직전 급상승(12/22, 데일리NK)

- 반년 넘게 ‘고공행진’을 거듭하다 지난 10월 소폭 하락했던 북한의 쌀값·환율이 이달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17일)를 앞두고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북매체 데일리NK가 22일 보도함.
- 데일리NK가 집계해 공개하는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10일 평양, 신의주, 혜산 등 북한 3개 주요도시 쌀값은 전달 대비 kg당 300~700원(북한 원화) 상승한 6천 400원, 6천 800원, 6천 500원을 각각 기록함.
- 특히 미국달러 대비 북한 원화의 환율이 크게 상승해 평양, 신의주, 혜산이 각각 전달 대비 1천 500원, 1천 300원, 2천원 오른 7천 800원, 8천원, 8천 450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평양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지난 9월(6천 370원)보다 높은 환율임.

다. 군사

● 北김정은, 부친 1주기 계기로 군부 충성 결집(12/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김 위원장 1주기인 17일 재개관한 금수산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김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인민군 육·해·공군의 결의대회와 분열행진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통신은 “김일성·김정일 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 충정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의 결의대회가 17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전함.
- 이날 열린 충성맹세 의식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등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함.
- 인민군을 대표해 연설한 최룡해는 “인민군대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 보위하는 오늘의 오중흥7연대(북한이 김일성 보위의 본보기로 선전하는 빨치산 부대), 하늘과 땅,

바다초소에서 당의 구상과 결심을 맨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이 되겠다”고 맹세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이례적으로 북한군 일선 군단장들이 나서서 김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결의연설들을 함.

● 북한, 미사일 발사 10월 이란에 설명(12/19, NHK)

- NHK 방송은 북한이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인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지난 10월 이란에 사전 설명했다고 10월 중순 평양을 방문했던 이란 이슬람 연합당의 부대표인 하미드 레자 타라기 의원의 말을 인용해 19일 보도함.
- 북한 방문단의 단장을 맡았던 타라기 의원 등은 10월 18일 평양에 도착해, 20일 북한 노동당의 김영일 국제비서와 회담함. 당시 김 국제비서는 ‘인공위성의 발사 준비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며, 이란 대표단은 ‘인공위성의 발사 능력을 미국·유럽만 독점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환영함.

● 北김정은 “실용위성·운반로켓 더 많이 발사해야”(1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1일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 성공을 계기로 실용위성과 운반로켓을 더 많이 발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평양 목란관에서 ‘광명성 3호’의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을 위해 개최한 연회에 참석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쏘아 올린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이번 위성발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를 만방에 시위한 장엄한 선언이며 선군조선의 종합적 국력을 과시한 역사적 장거”라고 평가하고 “동지들은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전례 없이 높이는데 공헌을 했다”고 말함.
- 연회에는 김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및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경희·김기남·최태복·박도춘·김

양건·김영일·김평해·곽범기·문경덕 당비서, 주규창 당 부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강석주·로두철 내각 부총리,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이 참석함.

● 北과학자 “실용위성 고도 500km에서 비행 중”(12/22, 조선중앙TV)

- 북한 과학자가 지난 12일 발사된 ‘광명성 3호 2호기’가 지구관측을 위한 실용위성이라며 고도 500km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김일성종합대 학부장인 박학철 교수는 21일 밤 조선중앙TV가 방송한 ‘광명성 3호 2호기’ 좌담회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지구관측용 위성에서는 고도가 500km~1천km로 규정돼 있다”며 “현재 우리의 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는 500km 정도의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다”고 말함.
- 박 교수는 ‘광명성 3호 2호기’의 비행고도를 500km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고도가 500km보다 낮으면 대기와 마찰로 인해 위성의 수명이 줄어들고 고도를 너무 높게 할 경우 지구관측에 지장을 준다고 설명

■ 기타 (군사)

- ‘광명성-3호’ 2호기 궤도 진입 관련 ‘민족사적 쾌거, 역사적 사변, 최첨단과학기술수준의 과시’라고 自讚하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 광기를 부리고 있지만 자주적 권리행사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12.20,중통·노동신문/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과시한 자랑스런 성과)

라. 사회문화

● “北 첫 전자게임 ‘평양 자동차경주’ 개발”(12/21, 유희망(游俠網))

- 북한에서 처음으로 PC용 전자게임이 개발됐다고 중국 게임사이트 유희망(游俠網)이 21일 전함.
- 이 매체는 ‘평양 자동차경주’라는 웹브라우저 기반의 이 게임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Koryo Tours)’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개발사는 ‘노소텍(Nosotek·북한명 제일정보기술합영회사)’이라고 소개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中류윈산 “북중관계 더 훌륭히 발전할 것”(12/17, 조선중앙통신)**
 -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류윈산(劉云山) 정치국 상무위원이 17일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 “북중관계가 더 훌륭히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류 상무위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를 맞은 이날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의 새 중앙영도집단은 전통적인 중조(북)친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노세대 혁명기들이 마련하고 키워준 전통적인 북중친선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함.

- **올해 국제사회 대북지원 전년比 30% 증가(12/18,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 자료를 인용해 18일 보도함.
 - OCHA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약 1억 1천 300만 달러(약 1천 210억원)로 지난해 8천 920만 달러보다 30% 늘었는데, 이는 2010년(2천 440만 달러)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임.
 - 대북 지원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스웨덴,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총 19개국으로 2010년 6개국, 2011년 17개국보다 늘었음.

- **美 NGO 대표 지난달 방북, 지원사업 현장 방문(12/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지원단체인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RS·Global Resource Services)의 대표가 지난달 북한을 방문해 지원 현장을 돌아봤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이 단체의 에디 올리버 대변인은 RFA와 인터뷰에서 “로버트 스프링스 (GRS) 회장이 지난달 66번째로 북한을 방문했다”며 “스프링스 회장은 북한이 GRS의 지원으로 황해북도에 조성한 콩 재배 농장과 염소 목장 등을 돌아봤다”고 전함.

● **중기업들, 北광물자원 투자 가속화(12/20, 신화망(新華網))**

- 북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 광물자원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북한 광산을 선점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20일 보도함.
-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북·중 접경인 중국 지린성의 훈춘용이(琿春永益)수출입무역회사는 지난 13일 훈춘시에서 북한 평양모란봉무역총회사와 금광 합영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 양측은 공동출자, 공동경영, 점진개발 방식으로 평양모란봉무역총회사가 소유한 북한 자강도 우산시의 금광을 채굴, 광석과 광분을 가공해 수출하기로 했으나, 투자 규모와 계약 기간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중기업들, 北에 대규모 해삼 양식장 추진(12/21, 신상보(新商報))**

-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의 수산물 양식업체들이 북한 해역에 대규모 해삼 양식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다롄에서 발행되는 신상보(新商報)가 21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다롄 와팡덴(瓦房店)시 해삼협회를 중심으로 한 20여개 수산물 양식업체는 북한의 동·서해안에 총 16km² 규모의 해삼 양식장과 종묘 배양장을 만드는 방안을 북한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바다 임대 기간은 20년이고, 초기 투자 규모는 1억위안(1천 750억원)가량임.

● **北, 한국계 미국인 억류 확인...북미 접촉 주목(종합)(12/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보도’를 통해 “지난 11월3일 라선시에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했던 미국 공민 배준호가 반공화국 적대범죄를 감행한 것으로 하여 해당기관에 억류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조사과정에서 배 씨의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가 증거물에 의해

밝혀졌으며, 본인도 자기 범죄행위에 대해 인정했다”고 전했지만, ‘반공 화국 적대범죄 행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

- **北억류 배준호씨, 꽃제비 사진 찍다 체포된 듯(12/22, 미국의 소리(VOA))**
 - 북한 당국에 40일 넘게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씨가 북한에 대한 외부의 도움을 호소하려고 ‘꽃제비’(먹을 것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북한 어린이)의 사진을 찍다가 체포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보도함.
 - 방송은 22일 도희운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를 인용해 배씨가 북한을 여행하다가 찍은 꽃제비 사진이 문제가 돼 체포됐다는 정황이 있다고 전함.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미국의 한국과 ‘탁상훈련’(12.6-7, 뉴멕시코州) 실시에 대해 “미국의 변함 없는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선제공격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 및 ‘미국의 反北정책 철회’ 주장 (12.18.중통)

나. 6자회담(북핵)

- **日 공안조사청 “내년 북한 핵실험 가능성”(12/21, 일본 지지통신)**
 - 일본의 법무성 산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이 내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21일 보도함.
 - 통신에 의하면 공안조사청은 이날 발표한 2013년 판 ‘내외정세의 회고와 전망’에서 최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의 향후 동향과 관련, “핵실험 등 추가적인 강경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한미, 北고농축우라늄 의심시설 영상첩보로 파악(종합)(12/21,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과 관련된 의심 시설을 첩보위성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양국 정보 당국은 북한에 HEU 의심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 동향을 정밀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군의 한 관계자는 ‘2012 국방백서’에 기술된 북한의 HEU 프로그램과 관

- 런, “한미가 공동으로 여러 가지 영상 첩보를 분석해 볼 때 그런(HEU) 시설들이, 그러한(농축) 동향들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북한의 HEU 프로그램과 관련한 시설을 영상첩보로 확인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관련 동향들을 우리가 식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프로그램) 대한 최종 평가를 유보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 현재 추적하고 있다”고 답했다.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동족대결이 전쟁위험·민생파탄 몰아와”(12/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동족대결이 긴장 격화와 전쟁 위험은 물론 민생파탄까지 몰아온다는 것은 이명박 집권 5년의 교훈”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이날 ‘동족대결 악담을 걷어치우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보수패당은 야당 세력을 우리(북한)와 억지로 연결시키는 한편 최고 존엄까지 모독하는 악선전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며 “대결광신자의 악담 질은 백두산 전세 위인들(김일성·김정일)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용납 못할 모독행위”라고 비난함.
- 北매체, 南대선 결과 하루 만에 보도(종합)(12/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남한의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결과 발표 하루만인 20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내외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9일 남조선에서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 한다”고 한 문장으로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논평도 덧붙이지 않음.

- **조선신보, 차당선인에 대북정책 입장 요구(종합)(12/21,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보도함.
 - 신보는 '실패한 대결정책과의 결별을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1일 '공개질문장'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후보에게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며 "대결인가 대화인가, 전쟁인가 평화인가, 북남관계 파탄인가 개선인가, 제2의 이명박인가 아닌가(공개질문장)라는 물음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조선(북한)의 변함없는 관점과 입장"이라고 밝힘.

- **군, 北장거리로켓 1단 잔해 3점 추가 수거(종합)(12/23,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의 1단 추진체 잔해물 3점이 추가로 우리 군에 수거됐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함.
 - 국방부는 23일 북한 장거리 로켓의 1단 추진체 '산화제통'을 인양했던 지점 1~2km 안의 범위에서 지난 21일 두 차례에 걸쳐 로켓 잔해 3점을 추가로 인양했다고 밝혔음.
 - 인양된 잔해는 1단 추진체의 연료통과 연료통 하단부위, 엔진 연결링으로 분석됐음.

나. 경제사화문화

- **北매체, '애기봉 등탑 점등' 간접 비난(1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우리 군(軍) 당국이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에서 성탄절 등탑의 점등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남한 민간단체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비난함.
 - 통신은 이날 "남조선의 30여개 단체가 괴뢰군부의 반공화국심리전 책동을 규탄해 2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만일 애기봉등탑에 불이 켜지는 경우 북과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매우 침예한 정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그들은 밝혔다"고 전함.

● **최전방 애기봉 등탑 2년 만에 점등...지역주민 반발(종합)(12/23, 연합뉴스)**

-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해발 165m) 등탑이 2년 만에 불을 밝혔으며, 북한의 위협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점등 저지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영등포교회와 탈북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 등 기독교 단체는 성탄절을 앞둔 2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애기봉에서 등탑 점등행사를 열었음.

■ **기타 (대남)**

- 北 민족화해협의회, 12.17 '집권 5년간 南北민간협력교류사업을 차단하고 통일영원을 짓밟은 現 정부와 새누리당 비난' '공보' 발표(12.17,중통)
- 민간협력교류 차단,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사업 파탄, 남북통일행사 방해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새누리당의 大選유세에서 對北언급(최고 존엄 모독 등)에 대해 "악랄한 대결선동, 특대형 도발행위"라고 비난 및 '동족대결책동 중단' 주장(12.18,중통/동족대결 악담을 걷어치우라)
- '천추에 용납 못할 불망중 행위' 題下로도 "반민족·반인륜적 행위"라고 비난 및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 위협 언동(12.18,중통·노동신문·민주조선·평방)

12.24-12.31

12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김정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일 맞아 금수산 참배(1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일을 맞아 24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일성·김정일 시신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함.
 - 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국가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김경옥 당 조직부 제1부부장, 최부일 총참모부 작전국장, 조정철 군 보위사령관, 박정천 군 중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김영철 정찰총국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등이 함께 하였으며, ‘광명성 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 이바지한 과학자, 기술자 등도 함께 참석함.

- **北, 사회주의헌법 제정 40주년 기념보고대회(12/26,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26일 사회주의헌법 발표(12월27일) 4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전함.
 - 이날 대회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기남·최태복·김평해·곽범기·김양건·문경덕 노동당 비서,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 고위 간부들이 자리함.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고에서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현장을 마련하고 발전 완성시켜주신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정에 휩싸여 있으며 당의 영도따라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철저히 구현해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고 밝힘.

● **北김정은, 9월이래 군부대 시찰 1회뿐(12/26, 조선신보)**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 9월 이래 이달 25일까지 한 차례만 군부대를 시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신보가 26일 밝힘.
- 신문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올해 공개활동(보도기준)을 월별·분야별로 상세하게 분석해 도표와 함께 보도함. 이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올해 144회의 공개활동을 했는데 이 가운데 경제인민생활 관련 활동이 32회(22.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군 시찰 29회(20.1%), 공연 관람 24회(16.7%), 행사 참석 19회(13.2%), 기념사진 촬영 16회(11.1%),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11회(7.6%), 기타 13회(9.0%) 순임.
-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올해 군부대 시찰은 주로 상반기에 이뤄졌는데, 상반기에는 22회 군부대를 찾았지만 하반기에는 단 7회 군부대를 방문하는데 그침.

● **北김정은 “12월10~15일 위성 발사하라” 지시(12/28, 조선중앙TV)**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를 약 한 달 앞두고 “12월 10~1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음.
-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0일부터 매일 반복해서 내보내는 기록영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밑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 성과적으로 발사’를 보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올린 보고서 표지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의 ‘친필명령’이 내린 것을 확인
- 김 제1위원장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하기 위한 인원들과 기재들을 서해위성발사장에 전개시킨 정황과 대책적 의견’이라는 보고서 표지에 “비준함. 12월 10일~15일 사이에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준비. 사업 진행하며 정확한 발사 날짜와 시간은 차후 지시. 대기할 것! 김정은 2012.11.14”라고 썼음.

● **北, 김정은 軍최고사령관 추대 기념행사 개최(12/29, 조선중앙방송; 평양 방송)**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일(12월 30일)을 앞두고 노동당의 외곽단체를 중심으로 기념행사를 열고 있음.

- 북한의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29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주년을 기념하는 청년 학생들의 경축모임이 전날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렸다고 전함.
-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모임에서 “김 제1위원장이 천재적인 군사적 지략과 무비의 담력, 탁월한 영군술과 하늘 같은 덕망을 지녔다”며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는 역사적 사변이고 조국의 운명과 미래를 확고히 담보한 민족의 대경사”라고 칭송
-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도 28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주년을 기념하는 경축모임을 여성회관에서 열었고,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과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은 지난 26일과 25일 각각 경축대회를 개최함.

● 北 “자주적 위성발사 권리 계속 행사할 것”(12/29,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국제법과 세계적 추세에 부합되는 자주적 위성발사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신문은 이날 ‘평화적 우주개발은 당연한 자주적 권리행사이다’라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북한)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부당하게 문제시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의 위성발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시뒀거리가 될 수 없는 정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우리의 위성발사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모든 나라의 권리로 규정한 우주조약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주권행사”라며 올해 진행된 두 차례의 위성발사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

● 北 “자위적 전쟁 억제력 더 강화해야”(12/29,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의 핵심 수뇌부인 현영철 총참모장은 29일 “국방공업 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현영철 총참모장은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1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온 나라에 군사중시 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함.

- 이날 중앙보고대회에는 현영철 총참모장 외에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김양건·문경덕 당비서,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영춘·오극렬·현철해·김정각 군차수 등이 주석단에 참석

● **北 김정은, 귀화 日 여성 편지에 친필 답장 눈길(12/30,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귀화한 일본 여성이 보낸 편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친필 답장을 보낸 사실을 30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전함.
- 신문은 함경남도 영광군 장흥리에 거주하는 림경심이라는 이름의 귀화한 일본여성이 김 제1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낸 사연과 김 제1위원장이 이 일본여성에게 보낸 친필을 사진과 함께 1면 기사로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이 여성은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노동당 당원으로 입당한 것에 대해 김 제1위원장과 당에 고마움을 전함.

● **北 ‘김정은 올해업적’으로 로켓·전방시찰 부각(12/30, 노동신문)**

-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지 1주년을 맞은 30일 그의 ‘올해의 업적’으로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최전방 지역 시찰을 집중 부각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올 한해 추진했던 각종 사업을 사실상 결산하는 형식으로 지면을 꾸미고 1~2면에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진두에 모신 선군혁명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라는 사설을 실음.
- 이 사설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것이 우리 혁명의 전도와 운명 개척에서 얼마나 커다란 행운으로 되는가를 가슴 뜨겁게 새겨 안고 있다”며 구체적 성과 중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을 가장 앞에 세움.

● **中 최고지도부, 김정은에 잇따라 연하장 보내(12/30, 노동신문)**

-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 28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내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전함.

- 신문은 “김정은 동지께 2013년 새해에 즈음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胡錦濤) 동지와 국무원 총리 온가보(溫家寶) 동지가 연하장을 보내왔다”며 연하장들은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해 관계부문 일꾼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힘.

● **北김정은, 어뢰정 지휘하고 판문점 쏠초병 소집도(12/30, 조선중앙TV)**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지 1주년을 맞은 30일 북한 매체들이 김 제1위원장과 관련한 각종 무용담을 ‘목격담’ 형식으로 공개하며 그의 행적을 미화함.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김 제1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최근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TV기념무대’를 녹화실황 형태로 방영함.
- 이 프로그램은 김 제1위원장의 각종 군부대 현지시찰을 직접 수행하거나 곁에서 지켜본 군인들이 차례로 무대에 등장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北김정은 “위성발사로 민족 자부심 복돋웠다”(12/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노동당의 연회에 참석해 위성발사에 기여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치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통신은 이날 “당 중앙위가 30일 목란관에서 첫 실용위성인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를 또다시 마련했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연회에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온 누리에 빛내고 노동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사적으로 옹호 보장했으며 천만 군민(軍民)에게 큰 민족적 자부심과 필승의 신념을 복돋워주고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전례없이 높였다”고 치하함.
- 이날 연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경희·최태복·박도춘 당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등 북한 지도부가 총출동함.

김정은동향

- 12/24, 김정은 黨 제1비서, 中 호금도 주식 생일 70돌 즈음 '北-中친선 강조' 축전(12.24,중통·중방)
- 12/24, 김정은 黨 제1비서, 12.24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1돌 및 김정숙 생일 95돌 즈음 혁명학원들과 전국의 육아원·애육원·초등학교·중등학교·양로원·양생원 등 단위들에 식료품을 전달(12.24,중통)
- 12/30, 김정은 黨 제1비서, '광명성-3'호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일꾼들과 黨중앙위원회에서 기념 촬영(12.30,중방·중통)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박범기, 문경덕, 주규창, 조연준, 최춘식, 리응원 등 참석
- 12/31, '위성발사' 기자들에게 보내는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선물전달식, 12.31 박도춘(黨비서)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12.31,중통·평방)
- 12/31, 김정은 黨 제1비서 및 상·중앙기관들, 12.31 쿠바혁명승리 54돌 즈음 驛北 쿠바대사관에 꽃바구니 전달(12.31,중통·중방)

기타 (대내 정치)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12.25 김정은 黨 제1비서의 '軍 최고사령관' 추대(2011.12.30) 1돌 기념 경축모임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12.25,중통)
- '사회주의 헌법' 발표(72.12.27) 40돌 관련 김일성 3父子의 '사회주의 헌법 제정·고수 및 김일성-김정일헌법 정식화' 등 칭송 및 '김정은 영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를 끝없이 빛내자고 강조(12.27,중방·중통·노동신문 사설/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어 나가자)
- 최영림 총리, 12.27 '광명성-3'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일꾼들 숙소방문(12.27,중통·중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정형 현지 요해(12.28,중통·평방)
-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1돌(12.30) 경축 중앙보고대회, 12.29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2.29,중방·평방·중앙TV)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현영철(총참모장/보고), 김격식,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국태, 김영춘, 양형섭, 리응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김정각, 오국렬,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박범기, 문경덕(사회), 주규창, 김창섭, 노두철, 리병삼, 조연준, 김영대, 최춘식 등 참석
- 김정은 黨 제1비서, 12.26 귀화 일본여성 '림경심'(함남 영광군 장흥리/1961년 9월 귀화)에게 친필 전달(12.29,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12.29 평양산원 현지요해(12.29,중통)
- 黨 중앙총, 12.30 목관관에서 김정은 黨 제1비서 등 참석下 '광명성-3'호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등 축하 연회 재차(12.21, 목관관) 개최(12.31,중통·중방·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격식, 김경희, 김기남(연설),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박범기, 문경덕,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등 참석

나. 경제

● 올해 북-중 무역 사상 최대 전망(12/30, 연합뉴스)

- 올해 북한-중국 간 교역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북중 교역액은 49억 5천 938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46억 6천 539만달러)보다 6.3% 늘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올해 월평균 교역액이 4억~5억달러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인 작년 수준(56억 2천만달러)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수출입액으로 보면 중국은 북한에 28억 5천 972만달러어치를 수출하고 20억 9천 966만달러 상당을 수입해 7억 6천만달러의 무역 흑자를 봤으며, 이는 작년(5억 7천만달러)보다 33%나 증가한 것임.

다. 사회·문화

● 北, 소년절·어머니날 명절로 지정(12/27, 연합뉴스)

- 북한이 '소년절(6.6)'과 '어머니날(11.16)'을 국가 명절로 새롭게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소년절과 어머니날을 내년부터 명절로 지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북한 달력에도 이를 쉬는 날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北태블릿PC "인터넷 불통이지만 학습용 인기"(12/28,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28일 자사 기자가 평양에서 북한제 태블릿 PC '삼지연'을 실제로 사용해봤다며 관련 기사와 사진을 내보냈다고 전함.
- 지난 20일 평양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을 보면 단말기 화면에 표시된 아이콘 29개 중에는 '고기잡이 유희'나 '비둘기 유희', '고무총 쏘기', '그림 맞추기' 같은 게임 앱이 포함되었으며, 태블릿 PC와 함께 촬영된 포장용 상자에는 제조사를 가리키는 듯 '조선컴퓨터중심'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음.

- **북한 여가수 중국 진출…올해 3차례 음반 발매(12/29, 흑룡강신문)**
 - 성악을 전공한 북한의 한 20대 여가수가 중국 가요계에 진출해 최근 5개월 사이에 3차례 정식 음반을 발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중국 현지의 흑룡강 신문이 29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에 체류 중인 북한 가수 김송미(金松美·27)는 8월 중국에서의 첫 번째 앨범 ‘수양버들’을 시작으로 10월 ‘조선명곡집-조국’, 지난 24일 ‘조선명곡집-사랑’을 잇따라 발표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노동신문 “日 우경화·군국화 심각한 단계”(12/24,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최근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우경화, 군국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냄.
 - 신문은 이날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선거 결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 차기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미일동맹의 강화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뒤 지지표를 많이 모았다며 “여기에는 일본의 극우익 정객들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일본 사회의 군국화 책동이 적지 않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고 지적함.
 - 또 “일본 극우세력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일본 사회의 주요 화젯거리로 올려 그것을 공식화, 정례화, 대중화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며 “지금 일본 사회의 우경화, 군국화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의 아시아 재침은 가능성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국제김정일상 제정(1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지 21년을 맞아 ‘국제김정일상’이 제정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국제김정일상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기념일인 광명성절을 계기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 온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위업실현, 인류문화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한 모든 나라의 정계, 사회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경제인들에게 수여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의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국제김정일상 이사회가 결성됐고 국제김정일상 수상자는 상장과 금메달, 컵을 받는다고 전함.

● **北, 내년 1월 김정일 시신 관광객에 공개(12/26, 연합뉴스)**

- 북한이 내년 1월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을 외국 관광객에 공개할 것이라고 중국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가 26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여행사는 이날 웹사이트에서 북한이 내년 1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외국 관광객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청진에 자유무역구 설치 희망(12/27,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 북한이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해 항만이 있는 청진시에 자유무역구를 설치할 의향을 내비쳤다고 중국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가 27일 전함.
- 신문은 익명의 북한 인사를 인용해 “북한은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을 개방하고 앞으로 청진시를 자유무역구에 넣을 의향이 있는데 이는 중국 선전(深천<土+川>), 둥완(東莞)과 같은 도시를 모방해 청진항 개발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함.

● **中네이멍구서 北유명화가 작품전시·판매 행사(12/27, 중국신문사)**

- 북한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가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市)에서 26일 개막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7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주최로 8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의 유화 99점과 수묵화 7점을 전시·판매함.
- **中 일부 지방서 탈북자 단속 완화(12/28,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 탈북자 단속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전함.
 - 최근 북중 접경지역을 다녀온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318파트너스' 관계자는 중국 공안 관계자에게 '탈북 여성을 체포하지 말라'는 내부 문건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힘.
- **中외교 부부장 “北지도자, 정확한 판단해야”(12/28,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장즈쥘(張志軍) 부부장(차관)이 북한 지도자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장 부부장은 “우리는 그들(북한 지도자들)이 지역의 평화, 안정 수호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판단 및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장 부부장은 이날 '중국의 외교 정책'을 주제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포럼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정책 조정 가능성을 묻는 말에 “독립 주권국인 조선(북한)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는 조선 지도자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내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음.
- **中 시양그룹, 北 대신 러시아로 투자처 바꿔(12/28, 연합뉴스)**
 - 북한 광산에 투자했다가 북한 당국의 계약 파기로 낭패를 본 중국 시양그룹(西洋集團)이 러시아로 투자처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은 28일 “시양그룹과 북한 당국 간에 계약과 관련해 '분규'가 장기화하면서 시양그룹이 새로운 철광 공급지로 러시아를 택해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함.

● 北 “美, 적대시 정책 철회해야” 압박 강화(12/28,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내년 1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기 출범을 앞두고 최근 북한 매체들이 잇따라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과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을 초래한 모든 극단적 사태들의 이면에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이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대조선 정책 집행에서 기존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난했음.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는 도발설과 위협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 군부의 수뇌부가 북한의 도발과 핵위협설을 제기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체질화하고 있는 자들의 입에서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는 낯두리 외에 다른 것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비난했음.

● 일본 경찰청 “실종자 868명 납북 가능성 조사”(12/29, 교도통신)

- 일본 경찰이 납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가 868명이라 밝혔고 교도통신이 29일 전함.
-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일본 경찰청 외사과는 전국의 경찰이 납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는 실종자가 11월 1일 현재 868명이라고 공개함.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美 국가정보위(NIC) 보고서(北의 핵전파방지가 국제사회의 주요과제 등) 관련 ‘미국은 있지도 않는 핵전파와 핵위협에 대해 떠들 아무런 명분도, 체면도 없다’며 ‘저들의 핵무기배치와 핵우산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12.25,중통/범죄적 핵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궤변)
- 호금도 中 주석과 온가보 총리, 12.28 해당부문 일꾼을 통해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연하장 전달 (12.29,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 “美, 핵확산·핵위협 떠들 명분 없어”(12/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은 핵확산과 핵위협에 대해 떠들 명분이 없다”며 북한의 핵확산 가능성을 지적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최근 보고서 내용을 반박함.
- 통신은 이날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조선의 핵 전파 방지(핵확산 방지)가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라느니 ‘북조선의 핵 무기 사용이 전 세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이것은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전파 위협’을 걸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저들의 핵무기 배비(배치)와 핵우산 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 어리석은 기도의 발로”라고 주장함.
- 이어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핵 전파 방지와 핵물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그것을 적극 실천해왔다”며 “미국은 우리의 있지도 않은 ‘핵 전파’와 ‘핵위협’에 대해 떠들 아무런 명분도, 체면도 없다”고 비난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애기봉 등탑, 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망동”(1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4일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 등탑에 대해 “전연(전방) 일대에서 심리모략전을 벌이는 것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위험한 망동”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통신은 이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종교행사’의 간판 밑에 감행한 (애기봉) 등탑 점등은 우리(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이같이 주장하면서, “(남측) 국방부가 주관하는 애기봉 등탑 점등은 단순한 종교행사가 아니다”며 “(남측) 군부 호전광들은 2년 전에도 우리(북한)에 대한 심리전 재개 조치를 공공연히 선포하고 그 일환으로 애기봉 등탑을 가동하면서 반공화국 모략 소동을 개시했었다”고 밝힘.
- 北 “현 정부 전철 밟지 말아야”…차당선인에 기대감(12/28, 연합뉴스; 민주조선)
 - 북한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기대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잇달아 보이고 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지난 19일 대선 이후 남한의 서부전선 애기봉의 등탑 점등, 국방백서에 북방한계선(NLL)의 해상경계선 공식화 등을 ‘동족대결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남한의 차기 정부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이어받아서 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7일 논평에서 지난 21일 남한의 국방백서 발간에 대해 “역적패당이 임기 말까지 동족대결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다음기(차기) 정부도 저들이 깔아놓은 북침의 궤도를 따라 질주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며 “그들(차기 정부)이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이명박 역적패당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北조평통 “NLL은 날강도적인 불법무법선”(12/28,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8일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에서 북방한계선(NLL)을 해상경계선으로 공식화한 데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문을 통해 “괴뢰들이 1967년부터 ‘국방백서’라는 것을 발간해왔지만,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적으로 쫓아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임중에 처한 이명박 패당은 어떻게 해서나 전쟁의 불씨를 다음 정권에 그대로 넘겨주어 대결정책의 실패를 만회해보려고 최후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함.
- 보도문은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미국이 남의 집 마당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이러한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이 정전협정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날강도적인 불법·무법선이라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다”며 “그것은 영해권에 대해 규정한 국제해양법을 비롯한 국제법과 규범들을 난폭하게 무시한 비법선”이라고 강조함.

● 北로켓 엔진 추정 잔해 6점 인양(종합2보)(12/28, 연합뉴스)

- 북한 장거리 로켓(은하-3호)의 엔진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서해에서 인양됐다고 28일 연합뉴스가 전함.
-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군산 서방 160km 해저에서 엔진 추정 잔해물 6점과 기타 소형 잔해물을 건져 올렸다”며 “추락할 때의 충격으로 많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나. 경제사화문화

● 오두산 통일전망대 개관 20년만에 새 단장(12/30, 연합뉴스)

-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개관 20년만에 새 단장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전망대는 올해 마지막 일요일인 30일 기획전시실을 최신 남북 소식으로 교체해 방문객을 맞았으며, 기획전시실은 비무장지대(DMZ)의 현재와 과거 모습에서부터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다양한

사진이 전시되어 있음.

- 사진은 전쟁의 상흔과 DMZ의 자연을 담은 것으로 공모전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선별했으며, 또 역대 대통령과 정관계 인사, 해외 인사들이 방명록에 남긴 통일 염원 메시지를 관람할 수 있음.

■ 기타 (대남)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17호(12.28)] 국방부 발간 '2012국방백서'(NLL을 해상경계선으로 규정 등) 관련 '전쟁의 불씨를 다음 정권에 넘겨주어 대결정책의 실패를 만회해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00역적패당의 대결적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12.28,중통·중방·중통·노동신문·평방 :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대결망동)

11·12월

북한동향 일지

<11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11/1,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교직원·학생들·총련 대표단·강습생들이 올린 편지에 대한 ‘친필’ 전달
11/4,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된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시찰 및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 전달
11/4,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준공을 앞둔 류경원·인민야외빙상장·롤라스케이트이장(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 전달) 시찰
11/5,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용성과 서포·역포지구 등 수도의 살림집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11/6, 중통·중방	최영림 총리, 대동강자라공장 능력확장공사 현지 요해
11/6, 중통·중방	김영남, 駐北 카타르 新任 대사 신임장 접수
11/7,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사격경기(4.25국방체육단 사격선수)와 여자배구경기(번개팀 : 평양팀) 관람
11/7,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에 ‘선물’ 전달모임, 11.6 최태복(黨 비서) 등 참가下 진행
11/8,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창광·경상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왕밤’ 전달
11/8, 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임업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생일상 전달
11/8, 중통	박익춘(외무상), 駐北 이란이슬람공화국 신임대사와 담화
11/9,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라오스 주석 및 시리아 대통령 등의 ‘黨 창건’ 67돌 축하전문에 답전
11/9, 중통·중방	최영림 총리, 강원도 세포·평강·이천군의 대규모 축산기지 건축현장 점검
11/12, 중통·평방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계기 「여맹」 조직·「여맹」원들이 마련한 ‘여맹호’ 방사포 인민군대 증정식, 태중수(咸南道黨 책임비서)·로성실(「여맹」위원장) 등 참가下 함흥광장에서 진행
11/13,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 지원’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11/13, 중통·평방	김영일(黨비서), 日 이노끼게놈연합(株) 회장(이노끼 간지)과 일행 및 日 체육대학 대표단 주요성원들을 만나 담화
11/14,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11.13 평양 금성학원 학생들에게 ‘밤’ 전달
11/14, 중방	장성택(국가체육지도위원장), 日 이노끼게놈연합주식회사 회장(이노끼 간지)·日 체육대학 대표단(마쯔나미 겐시로 이사장)과 담화
11/14, 중방	유경원·인민야외빙상장 종업원들, 박문호(평양시당 비서) 등 참석下 김정은 黨 제1비서 현지말씀 관철 꺾기모임 개최
11/14, 중방	용천광산 선광장 조업식, 태중수(함남도당 책임비서), 석덕환(단천지구광업총국 당 책임비서/보고) 등 참가下 진행
11/15, 중방	김정일 노작(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자) 발표 30돌 기념보고회, 11.14 김기남(당비서)·신용선(조선작가동맹 위원장) 등 참가下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

11/15,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중국 시진핑(習近平)에게 黨 총서기 黨 중앙군사총 주석 被選 축전
11/16,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시리아 대통령에게 '시정운동' 42돌 즈음 축전
11/17,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 內 공원꾸리기와 호안정리공사에 참가한 군부대들에 감사전달
11/17,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보내준 체육기재 전달모임, 리영수(黨 부장) 리종무(체육상) 등 참가下 청춘거리 경경기관에서 진행
11/17,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 공원꾸리기와 호안정리공사(합장강·보통강)에 참가한 부대 군인들에게 '감사' 전달
11/18,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
11/18,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 대표들에게 보낸 '선물' 전달모임, 리영수(黨 부장) 등 참가下 진행
11/19,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제534군부대 직속 기마중대 훈련장 시찰
11/19,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보위기관 창립절을 맞으며 '국가안전보위부' 방문
11/19,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11.18 혁명학원들과 평양시내 유치원·탁아소들에 물고기 전달
11/19, 중통·중방	최영림 총리, 평안남도 대안중기계·순천화학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11/20, 중통	최영림 총리,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와 413연구소 현지 요해
11/24,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11.23 전국분주소장회의 참가자들과 전체 인민보안원들에게 '축하문' 전달
11/26,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 분주소장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11/26,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 사법검찰일꾼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법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전달
11/26, 중통	김영일(黨비서), 駐北 이란대사(만수르 차보쉬)와 담화
11/27, 중통·중방	'北 인민보안부(리명수 부장) - 몽골 사법성間 협조에 관한 합의서', 평양에서 조인
11/28, 중통·중방	김영남, 몽골 사법성대표단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11/29, 중통·중방	김영남, 駐北 부르키나 파소 대사 신임장 접수
11/30,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발휘한"(금수산태양궁전광장 공원조성 등)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11/3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中 공산당 대표단(리건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면담 및 습근핑(習近平/시진핑) 총서기 친서 접수
11/30, 중통	양형섭, 러시아 아무르주 입법회의 여러정당 대표단과 담화

<12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12/1,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사회과학원' 창립 60돌 관련 과학자·일꾼들에게 서한(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전달
12/1,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라오스 정부수립 37돌 즈음 '뚝말리 싸이나산' 주석에게 축전
12/4, 중통·중방	최영림(내각총리), 양각도체육촌 및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12/4, 중통	최태복 의장,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이란이슬람공화국 신임대사와 담화
12/5,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김기남(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굴진공)과 리옥심(특류영예군인)의 결혼에 '감사와 결혼상' 전달
12/5, 중통	리영수(黨 부장),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 총비서와 담화
12/7, 중통	최영림(내각총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 현지 요해
12/7, 중통	김영일(黨비서), 이탈리아 국회 하원 자유인민당 그룹 부위원장 일행과 담화
12/11,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대 원호사업에 모범을 보인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김윤민' 등에게 감사 전달
12/11, 중통	박익춘(외무상),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쥬뵈 쏘바쥬)와 작별 담화
12/12, 중통·평방	김정숙(김정일 생모) 생일(12.24) 즈음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개막식, 김기남(黨 비서) 등 참가下 빙상관에서 진행
12/12, 중통	北(리룡남 무역상) - 쿠바(駐北 쿠바대사), 평양에서 '2013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발전을 위한 회의와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 조인
12/13,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에 제설 트랙터 전달
12/13, 평방	최영림(내각총리), 평양곡산공장·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평양금속건재공장·평양무궤도전차공장·류원신발공장 현지 요해(중통)
12/14,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12.12 8시 '로켓발사 친필명령 하달' 및 9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방문하여 발사과정 참관
12/15,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광명성-3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들 축하 및 기념사진 촬영
12/15,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초청 '광명성-3호 발사에 기여한 서해위성발사장 과학자·기술자·노동자·일꾼들, 평양 도착
12/17, 중통·중방·중앙TV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 '김정은 黨 제1비서와 부인 리설주'
12/18, 중통·중방	김정일이 마련한 '연고자가족 일행들(해외 연고자가족)을 위한 위로연', 김기남(黨 비서) 및 중국 항일혁명열사 장울화 가족일행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12/19,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해외동포들을 위해 마련한 연회, 김양건(黨비서)·재일본조선인추모대표단(배익주 총련 부의장) 재중조선인총연합회대표단(최은복 의장) 등 참가下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
12/20, 중통·중방	김정일 軍 최고사령관 추대 21돌 및 김정숙 생일 95돌(12.24) 관련 ‘농근맹 중앙 예술선전대’ 경축공연, 평안남도 속천군문화회관에서 진행
12/21,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100살 장수자 김광복(女, 平北 염주군 서림리)에게 ‘생일상’ 전달
12/22, 중통·중방·평방	黨 중앙총, 12.21 김정은과 리설주 등 참가下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등을 위한 연회’ 목란관에서 마련 및 김정은 축하 연설
12/24,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0시 금수산태양궁전 찾아 김일성父子에게 경의표시
12/24,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中 호금도 주식 생일 70돌 즈음 ‘北-中친선 강조’ 축전
12/24,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1돌 및 김정숙 생일 95돌 즈음 혁명학원들과 전국의 육아원·애육원·초등학교·중등학교·양로원·양생원 등 단위들에 식료품들 전달
12/24, 중통·중방	김영남·최영림 등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과 내각·군로단체·성·중앙기관 일꾼들,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 참관
12/24, 중통·평방	김영남·최영림·최룡해 등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일꾼 등, 대성산혁명열사릉 참배
12/27, 중통·중방	최영림 총리, ‘광명성-3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일꾼들’ 숙소방문
12/28,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체육단위들(압록강체육단 등)에 윤전기재(경기와 훈련보장에 이바지) 전달모임, 12.27 최태복(黨 비서)·리영수(黨 부장)·리종무(체육상) 등 참가下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12/28, 중통·평방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정형 현지 요해
12/28, 중통·중방	김영남, ‘위성발사’ 기자자들 숙소 방문 및 위훈자들 축하
12/29,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모범을 보인 체신성 산하 단위 연구사 장정은 등에게 ‘감사’ 전달
12/29, 중방·평방·중앙TV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1돌(12.30) 경축 중앙보고대회,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12/29,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12.26 귀화 일본여성 ‘림경심’(함남 영광군 장흥리/1961년 9월 귀화)에게 친필 전달
12/29, 중통	최영림(내각총리), 평양산원 현지요해
12/3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광명성-3호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일꾼들과 黨중앙총에서 기념 촬영
12/31,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및 성·중앙기관들, 쿠바혁명승리 54돌 즈음 駐北 쿠바대사관에 꽃바구니 전달
12/31, 중통·중방·평방	黨 중앙총, 12.30 목란관에서 김정은 黨 제1비서 등 참석下 ‘광명성-3호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등 축하 연회’ 재차(12.21, 목란관) 개최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